

**언어와 매체 EBS 수능특강  
2024~2019학년도 6개년 모음**

**6. 종합 (정답 및 해설)**

**편집자 : 오르비 '인센디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EBS에게 있습니다.**

## 06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서는 ‘그칠썩’를 통해 ‘긱다’라는 기본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치샤’는 ‘긱이샤’를 이어 적기 한 것이므로, 사동 접미사는 ‘-히-’가 아니라 ‘-이-’임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에서는 ‘그우러’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그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우릴씨니’를 통해 사동사가 ‘그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올이다’를 이어 적기 한 것으로 사동 접미사가 ‘-이-’임을 알 수 있다.

③ ㉢에서는 ‘뫼며’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뫼우시니’를 통해 사동사가 ‘뫼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동사에 결합한 사동 접미사는 ‘-우-’임을 알 수 있다.

④ ㉣에서는 ‘썩시니라’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썩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썩오노니’를 통해 사동사가 ‘썩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동사에 결합한 사동 접미사는 ‘-오-’임을 알 수 있다.

⑤ ㉤에서는 ‘긱고’를 통해 주동사의 기본형이 ‘긱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긱피시니’를 통해 사동사가 ‘긱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긱이다’를 이어 적기 한 것으로 사동 접미사가 ‘-이-’임을 알 수 있다.

## 10 언어

본문 89~91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①

## 01 중세 국어의 음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흐리-+-어’가 ‘흐리어’가 되는 것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반모음화가 아니라 반모음 ‘j’의 첨가가 일어난 것이므로 15세기 반모음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티-+-음’이 ‘툼’이 되는 것은 ‘티’의 ‘i’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바+이라’가 ‘배라’가 되는 것은 ‘이라’의 ‘i’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썩미-+-어’가 ‘썩며’가 된 것은 ‘미’의 ‘i’가 반모음 ‘j’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논호-+-아’가 ‘논화’가 된 것은 ‘호’의 ‘o’가 반모음 ‘w’로 반모음화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의 ‘저도’가 [저도]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j’가 탈락했기 때문이지 반모음 ‘j’가 첨가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의 ‘i’가 반모음 ‘j’로 바뀌는 것은 서로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피-+-어’가 ‘피[피:]’가 될 때에는 장음화가 일어나는데 ‘살피-+-어’가 ‘살피[살피:]’가 될 때에는 장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보상적 장음화는 어간이 1음절인 경우에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으로 ‘살피-’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④ ‘나뉘[나뉘:]’와 ‘뉘[뉘:]’는 모두 단모음 ‘u’가 반모음 ‘w’로 바뀌는 ‘w’ 반모음화가 일어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씨[씨:]’는 ‘쓰-+-어’에서 단모음 ‘-’가 탈락한 것이다. ‘피-+-어 → 피[피:]’의 경우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03 문장의 짜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내 앞을 지나갔다.'에는 관형사절 ('학생이) 교복을 입은'이 안겨 있다. 이 관형사절은 주어의 생략된 절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서울은 인구가 많다.'는 '인구가 많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따라서 홀문장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민재가 결백함이 밝혀졌다.'에서 '민재가 결백함'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그는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에서 인용절은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다고'이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했다고'라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두 번 성립한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세 번 성립한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의 부사 '빨리'는 보조사 '만'과 결합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다)의 부사 '그러나'는 앞 문장과 뒤 문장 사이에 쓰이어 문장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④ (라)의 부사 '결코'는 '아니다'와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⑤ (마)의 부사 '아주'는 다른 부사 '높이'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4 문장 성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의 서술어 '아니다'는 주어와 보어를 요구하므로 1차 성분으로 2개의 주어가 필요하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연재의'는 관형어, '많이'는 부사어이므로 둘 다 2차 성분에 해당한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 ② (가)에서 '읽는다'가 요구하는 1차 성분은 주어인 '연재의 동생은'과 목적어인 '책을'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③ (나)에서 1차 성분은 주어인 '나는', 목적어인 '새 신발을', 필수적 부사어인 '신발장에'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⑤ (나)에서는 '새'가 관형어로 2차 성분에 해당하고, (다)에서는 '문제의'가 관형어로 2차 성분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05 수식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아마'는 문장 내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내일쯤 아마 물건이 도착할 것이다.'와 같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사가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특강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11 언어

본문 92~94쪽

- 01 ④
  - 02 ⑤
  - 03 ③
  - 04 ③
- 05 ④

01 음운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많아’가 [마:나]로 발음되는 것은, ‘많-’에 ‘-아’가 결합하면서 후음 ‘ㅎ’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 결과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표적인 음운 배열 제약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실눈’이 [실:룬]으로 발음되는 것은, 유음 ‘르’ 뒤에 비음 ‘ㄴ’이 와서 ‘ㄴ’이 유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② ‘곧고’가 [곧꼬]로 발음되는 것은, 파열음 예사소리 ‘ㄷ’ 뒤에 파열음 예사소리 ‘ㄱ’이 와서 ‘ㄱ’이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③ ‘낱지’가 [나:치]로 발음되는 것은, 후음 ‘ㅎ’이 파찰음 예사소리 ‘ㅈ’과 인접하여 두 소리가 거센소리로 축약되었기 때문이다.
- ⑤ ‘다쳐’가 [다쳐]로 발음되는 것은, 경구개음 ‘ㅈ’ 뒤에 있는 반모음 ‘j’가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02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날렸다’는 어간 ‘날리-’에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날리-’의 ‘-리-’는 어간 ‘날-’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어미가 아니며 서술어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용언의 어간 ‘덮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이다. ‘덮이다’는 ‘덮다’의 피동사로, 용언의 어간 ‘덮-’에 파생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 ② ㉡는 어간 ‘거세-’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는 체언 ‘바람’에 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는 용언의 어간 ‘높-’에 파생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어이다.

03 안은문장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는 관형사절 ‘내가 어제 만난’과 서술절 ‘책이 정말 많았

다’가 안겨 있다. 여기서 관형사절은 관형어의 역할을, 서술절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에서는 부사절 ‘돈도 전혀 없이’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두 개의 절이 안겨 있는데, 관형사절 ‘내가 어제 만난’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술절 ‘책이 정말 많았다’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에 안겨 있는 명사절 ‘고향에 돌아가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에 안겨 있는 명사절 ‘고향에 돌아가기’에는 부사어 ‘고향에’가, ㉡에 안겨 있는 부사절 ‘돈도 전혀 없이’에는 부사어 ‘전혀’가 포함되어 있다.
- ⑤ ㉠은 관형사절과 서술절이, ㉡은 명사절이, ㉢은 부사절이 안겨 있는 겹문장이지만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04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의 ‘잘하며’에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며’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심었구나’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구나’가 쓰였다.
- ② ‘청소하는’은 어간 ‘청소하-’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한 형태이다.
- ④ ‘도착하셨니’에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니’가 쓰였다.
- ⑤ ‘불겠지만’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 연결 어미 ‘-지만’이 쓰였다.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지만’의 준말이다.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서 ‘개야밀’은 ‘어엿비 너기고’의 목적어로, ‘개야미’에 목적격 조사 ‘르’이 결합한 형태이다. ㉢에서 ‘잡일’은 ‘아니히며’의 목적어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에서 ‘말도’는 ‘문

하야'의 목적어로, '말'에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목적격 조사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㉓에서 '그를'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글'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이어 적기(연철)가 된 형태이다. ㉔에서 '아드를'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아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이어 적기(연철)가 된 형태이다. ㉕에서 '죄를'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죄'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형태이다.

**12 언어**

본문 95~98쪽

-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1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15세기 국어의 '글밭'은 '방'이 '나' 앞에서 'w'로 바뀌면서 '글알'로 변화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방'은 15세기 후반부터, '△'은 16세기부터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15세기 국어의 '침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이 '칠-'으로 나타났으며, '치보니'는 '칠-'이 '-으니'와 결합하여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 ④ 15세기 국어의 '지서'는 '△'이 소멸하면서 '지어'로 변화했다.
- ⑤ 현대 국어의 '춡다'는 '추우니'와 같이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02 국어사전 정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굽다'의 어원 정보 중 '구벼'를 통해 '굽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앞에서 어간 말이 '방'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굽다'의 어원 정보에서 '구블 시라'를 보면 '굽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이 '방'이 아니라 '브'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서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굽다'는 【...을】을 통해 '굽다'와 달리 목적어를 요구하므로 타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② '굽다'는 '굽어, 굽으니, 굽는다, 굽다' 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모두 '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굽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활용형이 '구워, 구우니' 등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굽다'의 활용형 '구워, 구우니'로 보아, 어미 '-은'이 결합한 '굽다'의 활용형은 '구운'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굽다'의 활용형 '굽어, 굽으니'로 보아, 어미 '-은'이 결합한 '굽다'의 활용형은 '굽은'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굽다'의 어원 정보 중 '굽는'을 통해 '굽다'가 자음으로 시작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과의 완벽한 시너지  
오개념 위험이 높은 변형 문제는 NO!  
보장된 고퀄리티 기출문제 OK!

하는 어미 '-느' 앞에서 어간 말음이 'ㅂ'으로 나타났음을, '굽다'의 어원 정보 중 '굽거늘'을 통해 '굽다'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거늘' 앞에서 어간 말음이 'ㅂ'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03 파생어의 형성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걱정되는'은 어근 '걱정'에 접미사 '-되-'가 결합한 동사 '걱정되다'의 활용형으로, 이때 '-되-'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라 피동의 뜻을 더하는 동사 파생 접미사이다. 따라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영광된'은 어근 '영광'에 접미사 '-되-'가 결합한 형용사 '영광되다'의 활용형으로, '영광스럽다'가 '영광되다'와 함께 쓰인 것은 ㉠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신비로운'은 어근 '신비'에 접미사 '-롭-'이 결합한 형용사 '신비롭다'의 활용형으로, '신비스럽다'가 '신비롭다'와 함께 쓰인 것은 ㉠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자유로운'은 어근 '자유'에 접미사 '-롭-'이 결합한 형용사 '자유롭다'의 활용형으로, '자유스럽다'가 '자유롭다'와 함께 쓰인 것은 ㉠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명예로운'은 어근 '명예'에 접미사 '-롭-'이 결합한 형용사 '명예롭다'의 활용형으로, '명예스럽다'가 '명예롭다'와 함께 쓰인 것은 ㉠의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답 ③

추측을 나타낸다. '-었-'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 부사어로 '벌써'가 쓰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에서 '-겠-'과 '-으리-'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근무하시느군요', '근무하셨(-시-+ -었-)군요'를 보면, '-시-'가 '-는-', '-었-' 따위의 시간 관련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결합함을 알 수 있다.

② '근무하셨(-시-+ -었-)군요'를 보면, '-시-'와 '-었-'이 음절로 줄여 쓰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끝내었겠다', '끝내었으리라'를 보면, '-었-'이 '-겠-', '-으리-' 따위의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결합함을 알 수 있다.

⑤ '간다고'와 '먹는다고'를 비교해 보면,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에 따라 '-느-'과 '-는-'으로 형태가 달리 선택됨을 알 수 있다. 또 '갔다고'와 '먹었다고'를 비교해 보면,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에 따라 '-았-'과 '-었-'으로 형태가 달리 선택됨을 알 수 있다.

### 04 안은문장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키가 작은'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실현된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무가 잘 자라도록'은 부사절에 해당한다.

③ '바람이 거세지기'는 명사절에 해당한다.

④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은 명사절에 해당한다.

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온다는'은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답 ②

### 05 시제, 실현 인식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는 '-겠-'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때 이와 유사한 의미로 선어말 어미 '-(으)리-'가 쓰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 '-겠-'과 '-으리-'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화자의

답 ④

##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바쁜 수험생을 위한 가장 빠른 수능완성 학습법  
수능완성에 수록된 지문에 대한 철저한 분석

13 언어

본문 99~102쪽

- 01 ③      02 ⑤      03 ⑤      04 ①  
05 ③

01 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팔당’은 경음화(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팔팡]으로 발음된다.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지만 ‘Paltang’가 아닌 ‘Paldang’로 표기해야 옳다. ‘ㄷ’은 모음 앞에서는 ‘d’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ㄹ’은 ‘ll’로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라[실라]’는 ‘Sila’가 아닌 ‘Silla’로 표기해야 옳다.
- ②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묵호[무코]’에서는 ‘ㅎ’을 밝혀 ‘Mukho’로 표기해야 옳다.
- ④ 비음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백매[백마]’에서는 ‘ㄱ’을 ‘ㅇ’으로 적어 ‘Baengma’로 표기해야 옳다.
- ⑤ ‘ㄴ’은 ‘l’로 소리 나더라도 ‘ll’로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광희문[광히문]’에서는 ‘ㄴ’을 ‘ll’로 적어 ‘Gwanghuimun’으로 표기해야 옳다.

02 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는 ‘e’, ‘웨’는 ‘we’로 표기된다. 두 말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 표기에 ‘w’가 선행하는지의 여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와’는 ‘wa’, ‘왜’는 ‘wae’로 표기된다. 두 말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 표기에 ‘e’가 후행하는지의 여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우’는 ‘u’, ‘유’는 ‘yu’로 표기된다. 두 말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 표기에 ‘y’가 선행하는지의 여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아’는 ‘a’, ‘와’는 ‘wa’로 표기된다. 두 말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 표기에 ‘w’가 선행하는지의 여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야’는 ‘ya’, ‘애’는 ‘yae’로 표기된다. 두 말의 로마자 표기는 모음 표기에 ‘e’가 후행하는지의 여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03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우리리보다’(우리리-+-어+보-+-다)는 용언의 연결형에 용언 어간이 붙어 있는 합성어이다.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용언 어간+용언 어간’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로는 용언 어간이 어미 없이 다른 용언 어간과 바로 연결된 ‘검붉다’를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접칼’은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붙어 있는 합성어이다. 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접칼’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어린이’는 용언의 관형사형에 명사가 붙어 있는 합성어이다. 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기 때문에 ‘어린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퍼내다’는 용언의 연결형에 용언 어간이 붙어 있는 합성어이다. 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기 때문에 ‘퍼내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보슬비’는 자립성이 없는 어근에 명사가 직접 붙어 있는 합성어이다. 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슬비’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04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살려’는 ‘약해진 불 따위를 다시 타게 하거나 비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동사 ‘살리다’의 활용형으로, ‘살-+-리-+-어’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접미사 ‘-리-’는 피동이 아닌 사동의 뜻을 더해 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돌워’는 ‘입맛을 당기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돌우다’의 활용형으로, ‘돌-+-우-+-어’로 분석된다. 접미사 ‘-우-’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 ③ ‘나뉘어’는 ‘하나가 둘 이상으로 갈리다.’라는 뜻을 가진 ‘나뉘다’의 활용형으로, ‘나누-+-이-+-어’로 분석된다. 접미사 ‘-이-’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 ④ ‘잡혀’는 ‘답보로 맡기다.’라는 뜻을 가진 ‘잡히다’의 활용형으로, ‘잡-+-히-+-어’로 분석된다. 접미사 ‘-히-’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 ⑤ ‘감겨’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말리거나 빙 둘러다.’라는 뜻을 가진 ‘감기다’의 활용형으로, ‘감-+-기-+-어’로 분석된다.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 05 시대·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어미의’라는 현대어 풀이를 볼 때 ‘어미’(어미+의)에는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바블’(밥을), ‘밥블’(밥을)은 모두 ‘밥+을’을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바블’에서는 이어 적기로 표기하였고, ‘밥블’에서는 거듭 적기로 표기하였다.
- ② ‘싸히’(땅에)에서 ‘싸’은 경음(된소리) 계열 자음의 표기이다.
- ④ ‘손순은’(손순은), ‘아히논’(아이는)에서 보조사 ‘은/는’이 사용되었다.
- ⑤ ‘치기’(모시기), ‘구헝기’(구하기)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

## 14 언어

본문 103~105쪽

01 ⑤

02 ⑤

03 ②

04 ⑤

05 ②

## 01 중세 국어의 음운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구개음화는 모음 ‘i’나 반모음 ‘j’ 앞에 오는 ‘ㄷ’이나 ‘ㄷ이’ ‘ㄷ’이나 ‘ㄷ’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를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마디’는 ‘마디, 마디’, ‘티끌’은 ‘티글, 티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디, 마디’와 ‘티글, 티글’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ㅈ, ㅊ’ 뒤에서 반모음 ‘j’를 발음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보기>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근대 국어 시기에 ‘ㅈ, ㅊ’의 조음 위치가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근대 국어 시기에 ‘디나다>지나다’에서와 같이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보기>의 사례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평안도 방언에서의 ‘ㅈ, ㅊ’이 경구개음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서 ‘찌’는 [찌]로 발음된다. 현대 국어에서는 ‘ㅈ’ 뒤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솔이’는 ‘솔이 → 소티 → [소치]’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② ‘가쵸’의 ‘쵸’에서 ‘ㅈ’ 뒤의 반모음 ‘j’는 탈락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밭일’은 ‘밭일 → 반닐 → [반닐]’로 발음되며,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다.
- ④ ‘끝으로[꼬트로]’는 ‘ㅌ’ 뒤에 놓이는 모음이 ‘i’가 아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어휘로 판가를 내는 수능 등급  
지문·발문·선지의 어휘 총망라 수록!

03 시간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종소리를 듣고서 교실을 나섰다.’에서 어미 ‘-고서’는 앞뒤 절의 두 사태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앞선 것이므로 진행상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 가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으면서’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는 중이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즈믄’은 ‘1,000’을 나타내던 고유어이고, ‘천(千)’은 ‘1,000’을 나타내는 한자어인데 ‘즈믄’은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유의어 경쟁을 하다가 ‘즈믄’은 소멸하고 ‘천’은 생존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나조’는 ‘저녁’을 의미하던 옛말인데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유의어 경쟁의 결과 소멸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04 용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서 형용사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와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시끄럽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명령형 어미 ‘-어라’,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웃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 ② 형용사의 경우 의문형 어미 ‘-(으)냐’, 감탄형 어미 ‘-구나’와 결합하고, 동사의 경우 의문형 어미 ‘-느냐’, 감탄형 어미 ‘-는구나’와 결합하므로 ‘찾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 ③ 형용사의 경우 감탄형 어미 ‘-구나’와 결합하고, 동사의 경우 ‘-는구나’와 결합하므로 ‘끓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 ④ 형용사의 경우 의문형 어미 ‘-(으)냐’와 결합하고, 동사의 경우 ‘-느냐’와 결합하므로 ‘좋다’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05 어휘의 변천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계란’의 의미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달걀’과 ‘계란’은 여전히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틈’은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라는 뜻이고, ‘새’는 ‘한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의 의미로 둘은 유의어 경쟁을 하다가 합성하여 ‘틈새’라는 단어를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시늉’은 ‘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꾸미는 짓’을 의미하고 ‘흉내’는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짓’을 의미하는데 둘 다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유의어 경쟁을 하며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수능완성에서 뽑은 1800단어 수록  
수능 어휘 완전 정복 커리큘럼

## 15 언어

본문 106~109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④

05 ⑤

## 01 중세 국어의 표기법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찌도(ㅈ+ + -어도)’는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 것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가 아니라, ‘-’ 탈락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아논(알+ + -논)’은 ‘알-’에서의 ‘ㄹ’ 탈락이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한 것이다.
- ③ ‘알코(알+ + -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 ‘ㅎ’이 다른 자음에 선행하는 경우의 거센소리되기는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④ ‘든노라(든+ + -노라)’는 비음화가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한 경우이다. 중세 국어에서 비음화는 표기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 ⑤ ‘빛과(빛+ 과)’는 8개의 종성에 속하지 않는 ‘츠’이 종성에 놓이면 ‘ㅅ’으로 발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 02 중세 국어의 표기법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근대 국어 시기에는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음에도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종성 표기가 ‘ㄷ’으로 통일되었으리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빛꽃’과 ‘엿의값’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표의주의 원리에 따른 표기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종성 표기에는 ‘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을 사용한다고 한 것은, 당시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의 8가지여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음주의 원리에 따라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만을 표기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8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만으로 종성 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표음주의 원리에 따른 종성 표기로 볼 수 있다.
- ⑤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를 씀’이라는 것은 ‘빛꽃’

의 ‘ㅅ’과 ‘엿의값’의 ‘츠’이 종성에서 ‘ㅅ’으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3 체언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ㄴ. ‘그를 만난 지가 꽤 오래되었다.’,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다.’를 통해 ‘지’가 붙은 말이 ‘가’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는 조사가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ㄷ. ‘그를 만난 지가 꽤 오래되었다.’,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다.’를 통해 ‘지’가 ‘그를 만난’, ‘한국을 떠난’ 따위의 수식을 받지 않으면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해서 문장의 첫머리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어미의 문법적 특성에 해당하므로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04 안은문장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의 안긴절 ‘엄마가 사 오신’의 주어는 ‘엄마가’로 전체 문장의 주어 ‘명수가’와 다르나, ㉔의 안긴절 ‘학교에 가기’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와 같은 ‘명수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의 안긴절 ‘명수가 이번 사건의 범인임’의 종류는 명사절이고, 조사 ‘이’와 결합하여 전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㉔의 안긴절 ‘명수가 빵을 먹은’의 종류는 관형사절이고, 전체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② ㉔의 안긴절은 안긴절 속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으나, ㉔의 안긴절 ‘엄마가 사 오신’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③ ㉔은 안긴절을 생략하여도 ‘명수가 빵을 먹었다.’와 같이 문장이 성립하나, ㉔은 안긴절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㉔의 안긴절 ‘자전거가 지나가도록’의 종류는 부사절이고 전체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㉔의 안긴절 ‘학교에 가기’의 종류는 명사절이고 조사 ‘에’와 결합하여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05 담화의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은 앞에서 ‘준호’가 언급한 ‘○○ 해양 박물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청자와의 물리적인 거리와 관련되어 쓰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앞선 ‘준호’의 발화인 “친구가 전시회 초대권을 두 장 줬는데, 이번 주말에 뭐 해?”를 가리키고 있다.
- ② ㉒은 오래지 아니한 과거의 어느 때를 이르는 말로, ‘지우’가 평소 해양 환경 보호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발표했던 과거의 국어 수업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 ③ ㉓은 전시회 주제가 ‘지우’의 평소 관심사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에 미술 수행 평가인 전시회 감상문 쓰기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 ④ ㉔은 가리키는 대상인 ‘초대권’이 ‘준호’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01 매체

본문 110~114쪽

- 01 ②                      02 ②                      03 ③                      04 ⑤
- 05 ⑤

0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유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담 참여자인 사회자나 강 소장은 자신들의 발언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송의 특성이 드러난다.
- ③ 사회자와 강 소장은 대화에서 모두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담화를 바탕으로 하는 방송의 특성이 드러난다.
- ④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넷의 실시간 영상을 통해 방송 내용이 청취자나 시청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불특정 대상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의 특성이 드러난다.
- ⑤ 사회자가 방송 중에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확인하여 강 소장에게 묻고, 그 질문에 대해 강 소장이 답변한다는 점에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송의 특성이 드러난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사회자는 강 소장의 발언 중에서 궁금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강 소장의 추가적인 설명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회자는 강 소장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있으나, 강 소장의 설명 중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 보충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③ 사회자는 지난 방송에서 설명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잘못 설명한 내용을 정정하지는 않았다.
- ④ 사회자는 질문을 통해 강 소장의 설명을 이끌어 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경험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 ⑤ 사회자는 방송의 서두에서 방송에서 다룰 내용을 밝혔으나, 방송에서 전달할 내용을 순차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어휘력이 수능 합격을 좌우한다!  
수능 필수 적중 어휘만 선별 수록한  
40일 단기 완성 VOCA

## 언어 10

## 종합 1

본문 90~94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6 ②

## 01 음운의 변천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바느질’은 ‘바늘’과 ‘-질’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단골집’은 ‘단골’과 ‘집’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지 않은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소나무’는 ‘술’과 ‘나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나날이’는 ‘날 + 날 + -이’에서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돌도끼’는 ‘돌’과 ‘도끼’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지 않은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물집’은 ‘물’과 ‘집’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지 않은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④ ‘화살’은 ‘활’과 ‘살’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버드나무’는 ‘버들’과 ‘나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여닫이’는 ‘열 + 닫 + -이’에서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아드님’은 ‘아들’과 ‘-님’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02 음운의 변천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뽕눈’의 경우 15세기에는 음절 종성에서 ‘ㄹ’과 ‘ㅂ’이 모두 발음되다가 이후 음운 변동을 겪게 되었을 것인데, 현대 국어에서의 ‘뽕눈’은 [뽕:눈]으로 발음되고 있다.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6세기 이후 유음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ㄴ눈’의 경우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용언의 어간 받침 ‘ㄹ’이 탈락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알눈’의 경우 ‘알-’의 ‘ㅎ’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③ ‘숯-’과 같이 ‘ㄹ’계 자음군이 어간의 받침인 경우에는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술립’의 경우 유음화가 표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03 문법 단위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관형사가 아니라 대명사이다. 문장 내에서는 체언 ‘아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명사이며, 부사격 조사 ‘에’가 붙을 수 있는 부사어이다.

② ㉡은 대명사이며,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을 수 있는 목적어이다.

④ ‘오늘’은 명사, 부사로 품사 통용이 되는 말이다. ‘오늘의 날씨’처럼 조사가 붙는 경우는 명사로, ‘오늘 온다.’처럼 서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부사로 볼 수 있다. ㉢은 부사이며,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이다.

⑤ ㉣은 명사이며, ‘되다’가 요구하는 보어이다.

## 04 어미의 이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과 ㉢의 ‘-고’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그 용언이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전성 어미가 아니라 연결 어미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게’, ㉡의 ‘-고’, ㉢의 ‘-은’, ㉣의 ‘-고’, ㉤의 ‘-ㅂ니다’는 모두 어말 어미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의 ‘-게’는 전성 어미인 부사형 어미이고, ㉢의 ‘-은’은 전성 어미인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되었고, ㉢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의 ‘-ㅂ니다’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면서 문장을 종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05 겹문장의 종류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라)에서 관형사절은 ‘그가 (글을) 쓴’과 ‘(사람들이) 많은’

이다. 생략된 문장 성분은 보어가 아니라 각각 목적어와 주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탐구 결과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그는 줄넘기를 하려고, (그는) 집을 나섰다.’에서 두 절의 주어가 동일하여 하나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나)에서는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는 (수학을) 싫어한다.’에서 두 절의 목적어가 동일하여 하나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다)에서는 ‘(나무가) 큰’에서 관형사절의 주어인 ‘나무가’가 생략되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마)에서는 ‘지난주에 (수족관에) 갔던’에서 관형사절의 부사어인 ‘수족관에’가 생략되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6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쓰다’의 반의어가 ‘지우다’일 때에는 ‘쓰다’가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쓰다’의 반의어가 ‘달다’일 때에는 ‘쓰다’가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 씹바귀의 맛과 같다.’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둘은 동음이의어로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반의어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독하다’가 ‘맛, 냄새 따위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고 자극적이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순하다’일 수 있고, ‘의지가 강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약하다’일 수 있다.
- ③ ‘서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앉다’일 수 있고,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무더지다’일 수 있다.
- ④ ‘열다’가 ‘달히거나 잠긴 것을 뜨거나 벗기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달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터놓거나 이야기를 시작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다물다’일 수 있다.
- ⑤ ‘벗다’는 ‘옷을 몸에 껴거나 두르다.’의 의미를 지니는 ‘입다’의 반의어가 될 수도 있고, ‘신, 버선, 양말 따위를 발에 꿰다.’의 의미를 지니는 ‘신다’의 반의어가 될 수도 있다.

**언어 11**

종합 ②

본문 95~99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⑤

**01 국어의 자음 체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앞집[압집]’에서 ‘앞’의 파열음 거센소리 ‘ㅍ’은 파열음 예사소리 ‘ㅂ’으로 바뀌었는데 조음 위치(입술소리)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맛밭이[만빠지]’에서 ‘맛’의 파찰음 예사소리 ‘ㅈ’은 파열음 예사소리 ‘ㄷ’으로 바뀌면서 센입천장소리가 잇몸소리로 바뀌는 조음 위치의 변화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밤물[밤물]’에서 ‘ㅂ’이 ‘ㅁ’으로, ‘앞집[압집]’에서 ‘ㅍ’이 ‘ㅂ’으로, ‘ㅈ’이 ‘ㅈ’으로 바뀌었다. ‘신라[실라]’에서 ‘ㄴ’이 ‘ㄹ’로, ‘앞마당[암마당]’에서 ‘ㅍ’이 ‘ㅁ’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음운 변동에서 조음 위치에는 변화가 없다.
- ② ‘앞마당[암마당]’에서 ‘ㅍ’이 ‘ㅁ’으로 바뀌었다. 이는 파열음 거센소리 ‘ㅍ’이 파열음 예사소리 ‘ㅂ’으로 바뀐 후(‘앞집[압집]’에서 ‘ㅍ’이 ‘ㅂ’으로 바뀐.), 뒤 음절의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었다고(‘밤물[밤물]’에서 ‘ㅂ’이 ‘ㅁ’으로 바뀐.) 설명할 수 있다.
- ③ ‘밤물[밤물]’에서는 파열음 예사소리 ‘ㅂ’이 비음 ‘ㅁ’으로 바뀌었다. ‘신라[실라]’에서는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뀌었다.
- ⑤ ‘맛밭이[만빠지]’에서 ‘맛’의 파찰음 센입천장소리 ‘ㅈ’은 파열음 잇몸소리 ‘ㄷ’으로 바뀌었다. 또한 ‘밭’의 파열음 잇몸소리 ‘ㄷ’은 파찰음 센입천장소리 ‘ㅈ’으로 바뀌었다.

**02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라 한다. 예를 들어 ‘개-진돗개’의 관계를 들 수 있으며, 이때 전자를 상의어, 후자를 하의어라 한다. ‘벌리다, 느끼다’는 ‘뜨다<sup>2</sup>’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즉 ‘벌리다’는 ‘뜨다<sup>2</sup>」1」의, ‘느끼다’는 ‘뜨다<sup>2</sup>」2」의 사전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를 ‘상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한다.

② ‘중심 의미’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닐 때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말한다. 그리고 이 중심 의미를 제외한 다른 의미를 ‘주변 의미’라 한다. 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심 의미를 가장 먼저 제시한다.

④ 단어들의 유의 관계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유의어가 된다. 또한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과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많다.

⑤ ‘뜨다<sup>1</sup>-㉠’은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다.’라는 뜻이므로 반의어는 ‘가라앉다’, ‘내려앉다’와 같이 ‘방향’과 관련된 의미 자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03 문장 성분별 특성-서술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내일 보낼 편지를 써 두어야 한다.’에서 ‘두다’는 동사 뒤에서 ‘-어 두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하다’는 ‘-어야 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서술어는 본용언에 보조 용언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는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에서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않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② ‘-(으)며, -(으)면서’는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③ ‘오늘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걷고 싶다.’에서 ‘맞다’와 ‘걷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본용언의 연속에 보조 용언 ‘싶다’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동생은 숙제를 하고 나서 쉬었다.’에서 ‘하다’는 ‘숙제를’을 목적어로 하는 본용언이다. 또한 이 문장에서 ‘나다’는 ‘-고 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쉬다’는 ‘하다’와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으므로 따로 일어나는 동작임을 알 수 있다.

### 04 안은문장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명사절 ‘아침에 운동하기’에 부사어 ‘아침에’가 있다. ㉡은 관형사절 ‘친구들을 지켜보던’에 부사어가 없다. 참고로, 부사절 ‘아무런 소리도 없이’는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내가 최근에 산’, ㉡의 ‘부지런한’, ㉢의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의 ‘오늘 우리가 자료를 찾아본’, ㉤의 ‘친구들을 지켜보던’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② ㉠의 ‘값이 아주 비싸다’, ㉢의 ‘인구가 매우 많다’, ㉣의 ‘규모가 컸다’는 서술절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③ ㉠의 ‘내가 최근에 산’은 ‘사다’의 목적어가 생략된 절로, ㉣의 ‘오늘 우리가 자료를 찾아본’은 ‘찾아보다’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생략된 절로 볼 수 있다.

⑤ ㉢의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의 ‘아무런 소리도 없이’는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 05 담화의 특성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그렇게’는 ‘그러하게’가 줄어든 말로, 이미 언급한 말이나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보기>의 담화 상황으로 보아 ㉠의 대용 표현은 앞서 딸이 말한 내용(급한 약속이 생겨 못 갈 것 같다.)을 대신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잠을 자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의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어쩔’이 감탄사로 쓰이면 ‘뜻밖의 일 따위에 탄복할 때 나오는 소리.’이다. 딸의 발화가 의외여서 감탄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풀다’의 피동사 ‘풀리다’가 사용된 피동문이다. 피동 표현에는 화자의 의도나 심리가 담겨 있을 때가 많은데, 여기서 화자가 풀려고 하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과제’에 초점을 두어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담화 상황으로 보아 부정 부사 ‘못’은 급한 약속으로 인해 할머니 댁에 갈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06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받즈온’에는,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즈- / -졸-’에서 변화된, 선어말 어미 ‘-즈오-’가 결합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부모’를 높이고 있다. 현대 국어에서 ‘-자오-’는 예스러운 표현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참고로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 또는 ‘ㄱ’가 이어진 경우 이 모음과 결합하여 ‘고’ 또는 ‘구’로 바뀌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고, ㉡에는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이다.
- ② ㉢는 ‘술ㅎ’에 ‘은’이 결합한 형태로 현대 국어 ‘살’에는 없는 자음이 있고, ㉣의 ‘일흠’에는 현대 국어 ‘이름’에는 없는 자음이 있다.
- ③ ‘비르소미오’는 ‘비르숨’에 ‘이오’가 연결된 것이다. 여기서 ‘비르숨’은 ‘비르-’에 ‘-움’이 결합한 형태로, ‘비르-’의 끝소리 ‘ㅅ’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르숨’의 끝소리 ‘ㅁ’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 적고 있다. 그런데 ‘ㅁ춤이니라’에서는 ‘ㅁ춤’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끊어 적고 있다.
- ④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을 두음 법칙이라 한다. ‘이, ㅈ, ㅊ, ㅌ, ㅍ, ㅊ’ 앞에서의 ‘ㄹ’과 ‘ㄴ’이 없어지고, ‘ㅌ, ㄱ, ㅊ, ㅍ, ㅊ’ 앞의 ‘ㄹ’은 ‘ㄴ’으로 변하는 것 따위를 말한다. ㉤의 ‘닐러’는 이러한 현대 국어의 제약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언어 12

종합 ③

본문 100~104쪽

01 ③  
05 ①

02 ④

03 ⑤

04 ①

01 음운 변동 - 탈락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값있는[가빈는]’은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 ‘값’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인 ‘있-’이 오는 경우이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값’의 겹받침 ‘ㅁ’ 중 ‘ㅅ’이 탈락하고 남은 ‘ㅂ’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발음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삶만[삼:만]’은 겹받침 ‘ㅁ’을 가진 ‘삶’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만’이 오는 경우이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 ② ‘읽어[일거]’는 겹받침 ‘ㄹ’을 가진 ‘읽-’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어’가 오는 경우이므로, 연음만 일어나고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④ ‘맏거든[만:커든]’은 ‘맏-’의 겹받침 ‘ㅎ’ 중 ‘ㅎ’이 뒤따르는 ‘-기’와 합쳐져 ‘ㄱ’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 ⑤ ‘넓고[널꼬]’는 ‘넓-’의 ‘ㅂ’ 뒤에서 된소리되기보다 먼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ㅂ’이 탈락하게 된 것이다.

02 표준 발음법에 관한 조항 - 받침의 발음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옴는’의 표준 발음이 [음는]인 것은 공명음인 ‘ㄹ’과 장애음인 ‘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겹받침 ‘ㅍ’에서 ‘ㄹ’이 탈락하고 ‘ㅍ’이 남는 양상(‘ㅍ’은 음절 종성에서 [ㅂ]으로 발음됨.)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앓다’의 표준 발음이 [안따]인 것은 공명음인 ‘ㄴ’과 장애음인 ‘ㄷ’으로 구성되어 있는 겹받침 ‘ㄷ’에서 ‘ㄷ’이 탈락하고 ‘ㄴ’이 남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② ‘여덟’의 표준 발음이 [여덜]인 것은 공명음인 ‘ㄹ’과 장애음인 ‘ㅂ’으로 구성되어 있는 겹받침 ‘ㅂ’에서 ‘ㅂ’이 탈락하고 ‘ㄹ’이 남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③ ‘외곶’의 표준 발음이 [외곶]인 것은 공명음인 ‘ㄹ’과 장애음인 ‘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겹받침 ‘ㅅ’에서 ‘ㅅ’이 탈락하고 ‘ㄹ’

이 남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⑤ ‘활는’의 표준 발음이 [활른]인 것은 공명음인 ‘ㄹ’과 장애음인 ‘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겹받침 ‘ㅌ’에서 ‘ㅌ’이 탈락하고 ‘ㄹ’이 남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03 단어의 의미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그의 영향력은 말 한마디에 온 나라를 들었다 놓을 정도였다.’에서 ‘들었다 놓다’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므로, ‘들다<sup>1</sup>-[1]-[1]’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것이 ‘들다<sup>1</sup>-[1]-[1]’을 활용한 관용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들었다 놓다’는 ‘들다<sup>3</sup>’과 관련한 관용구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들다<sup>2</sup>’는 목적어 없이 쓰이므로, 자동사임을 알 수 있다.  
 ② ‘들다<sup>3</sup>-[1]’과 ‘들다<sup>1</sup>-[2]’의 제시된 문형 정보를 보면, ‘들다<sup>3</sup>-[1]’은 주어 외에도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며, ‘들다<sup>1</sup>-[2]’는 주어만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③ ‘들다<sup>1</sup>-[1]-[2]’의 의미와 제시된 용례를 고려하면, ‘들다<sup>1</sup>-[1]-[2]’의 용례로 ‘아침이면 이 방에 별이 잘 들었다.’를 추가할 수 있다.  
 ④ ‘들다<sup>3</sup>-[2]’의 의미를 고려하면, 그 반의어가 쓰인 예로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옮겨 놓다.’라는 의미인 ‘내리다’가 쓰인 문장 ‘쌀가마니를 바닥에 내리다.’를 제시할 수 있다.

### 04 안은문장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의 명사절 ‘따뜻한 봄이 오기’의 주어인 ‘따뜻한 봄이’는 안은문장의 주어 ‘우리는’과 다르며, 생략되어 있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관형사절 ‘내 생일에 새 자전거를 사 주실’의 주어는 ‘아버지는’인데, 안은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는’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의 관형사절 ‘저희를 집으로 부른’의 목적어는 ‘저희를’인데, 안은문장의 주어인 ‘아들 내외는’과 의미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의 인용절 ‘자기의 도끼를 찾아 달라고’의 관형어는 ‘자기의’인데, 안은문장의 주어인 ‘나무꾼은’과 의미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⑤ ㉤에서 ‘그는 부지런하므로’와 ‘(그는) 필시 성공할 것이다.’

의 주어는 둘 다 ‘그는’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가 한 번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05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請ᄃᆞᆫ스바’와 ‘請ᄃᆞᆫ야’를 비교해 보면, ‘請ᄃᆞᆫ스바’에는 ‘태자’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슬-’이 실현되었으나 ‘請ᄃᆞᆫ야’에는 별다른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달’이 ‘태자’는 높이고 ‘대신’은 높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이받즈보려’와 ‘이바도려’를 비교해 보면, ‘이받즈보려’에는 ‘태자’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줄-’이 실현되었고 ‘이바도려’에는 별다른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달’이 ‘태자’는 높이고 ‘아술’은 높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므로 이를 통해 문장의 주어인 ‘주인’을 높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③ ‘請ᄃᆞᆫ스보려’에는 ‘부터와 중’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슬-’이 실현되었다. ‘호미’가 ‘부터’는 높이고 ‘중’은 높이지 않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請ᄃᆞᆫ스바’와 ‘請ᄃᆞᆫ스보려’에 실현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슬-’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쓰인 형태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슬-’으로 실현되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받즈보려’에 실현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줄-’은 어간 말음이 ‘ㄷ’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의 형태이므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말음이 ‘빙’으로 교체되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언어 13

종합 4

본문 105~107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②

01 품사의 특성-체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듯이’는 ‘떨 듯이 기뻐하다.’, ‘아는 듯이 말했다.’처럼 다양한 서술어가 후행할 수 있으며 서술어에 제한이 있는 의존 명사가 아니다. 따라서 ‘듯이’의 뒤에는 ‘없다’나 ‘있다’만이 후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존 명사 ‘김’은 ‘-은/는 김에’ 구성으로 쓰이므로 격 조사 결합의 제약을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의존 명사 ‘바람’은 항상 ‘-는 바람에’ 구성으로 쓰이므로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가 제한되는 의존 명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의존 명사 ‘개’는 자립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의존 명사로만 쓰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순가락’은 ‘순가락으로 밥을 뜨다.’에서와 같이 자립 명사이지만, ‘두 순가락’에서처럼 단위성 의존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02 문장 성분의 단계적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서 ‘어머니가 (김치를) 담근’에는 주어라 아니라 목적어가 생략된 절이 안겨 있으므로 주어라 생략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에는 ‘(편지를) 쓴’과 같이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고, ㉢에는 ‘(친구들이) 많은’과 같이 주어라 생략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관형사절과 서술절, ㉡에는 관형사절과 명사절, ㉢에는 관형사절과 명사절이 안겨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② ㉠의 안은문장의 주어는 ‘어머니가 담근 김치는’이고, 서술절인 ‘맛이 좋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③ ㉡의 ‘결심했다’는 주어 ‘나는’과 부사어 ‘친구에게 오래전에 쓴 편지를 보내기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 ⑤ ㉢에서는 명사절 ‘친구에게 오래전에 쓴 편지를 보내기’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하여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에서는 명사절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함’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여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풀잎만’은 ‘ㄴ’ 첨가,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나 [풀립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풀님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꽃잎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꼐니핀]으로 발음된다.
- ② ‘없네’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가 일어나 [엄:네]로 발음된다.
- ③ ‘땀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땀찌]로 발음된다.
- ④ ‘못하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모타고]로 발음된다.

04 문장의 의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실패’와 ‘우승’이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이 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펭귄’이 ‘새’보다 하위어이기 때문에 앞 문장이 뒤 문장을 함의하게 된다.
- ② 보조사 ‘는’이 대조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집이 아닌 곳에서는 말을 잘 안 하거나, 말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미 중 하나를 함의할 수 있게 된다.
- ④ ‘남편’과 ‘아내’가 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구조가 다른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하게 된다.
- ⑤ ‘책방’과 ‘서점’이 동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하게 된다.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고’ 앞에 놓이므로 ‘므스’가 들어가는 것이 옳고, ㉡은 부사격 조사 ‘과’ 앞에 놓이므로 ‘므슴’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 언어 14

## 종합 6

본문 108~111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④

05 ④

## 01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ㄱ. ‘차가운’, ‘뜨거운’이나 ‘깨끗한’, ‘더러운’은 모두 ‘물’ 앞에 위치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단위이다.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나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모두 가능한데, 이로 보아 ‘차가운’, ‘뜨거운’이나 ‘깨끗한’, ‘더러운’은 서로 계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ㄴ. ‘뜨거운 차가움’은 ‘뜨거운’과 ‘차가움’이 결합 관계를 맺고 있는 표현으로, 두 단어는 의미상 모순된다. 공기 제약을 위반한 표현으로, 두 단어의 결합 관계가 자연스럽게 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ㄷ. ‘시끄러운 고요’는 공기 제약을 위반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고요’를 ‘정적’으로 바꾸더라도 공기 제약의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요’나 ‘정적’의 의미와 모순되는 ‘시끄러운’이라는 수식어와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지 않기 때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ㄴ. ‘적은 함유량’에서 ‘적은’을 ‘낮은’으로 바꾸면 ‘낮은 함유량’이 된다. 이렇게 바꾼 ‘낮은 함유량’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공기 제약을 위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 02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은 하위어가 상위어를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관계인 일방 함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동물’과 ‘나귀’는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항상 ‘나귀’인 것은 아니므로 ‘동물’은 ‘나귀’를 함의하지 않지만, ‘나귀’는 항상 ‘동물’이므로 ‘나귀’는 ‘동물’을 함의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생물-동물-당나귀/나귀’라는 계층적 구조 내에서 ‘생물’이나 ‘동물’은 ‘당나귀’나 ‘나귀’에 비해 상위어에 해당한다. 하위어가 상위어보다 더 많은 수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상위어인 ‘생물’이나 ‘동물’이 하위어인 ‘당나귀’나 ‘나귀’보다 항상 많은 수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생물-동물-당나귀’는 계층적 위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물’과 ‘당나귀’, ‘생물’과 ‘동물’, ‘동물’과 ‘당나귀’는 모두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

④ ‘생물’과 ‘무생물’이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의미 관계인 반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무생물’과 ‘동물’은 반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당나귀’와 ‘나귀’는 의미상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인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⑤ ‘동물’은 ‘생물’과의 관계에서는 하위어이다. 하지만 ‘동물’은 ‘당나귀’와의 관계에서는 상위어이다.

## 03 로마자 표기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학여울’은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 [항녀울]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 결과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대관령’은 유음화가 일어나 [대:괘령]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결과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팔당’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팔땅]으로 발음된다. ‘Palttang’으로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묵호’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무코]로 발음된다. ‘묵호’의 로마자 표기는 ‘Mukho’인데, ‘Muko’로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변동의 결과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월곶’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월곶]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결과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04 문장 성분별 특성 - 부사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 있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함께 쓰여 하나의 서술어가 된 형태이다. ‘가’는 용언의 어간 ‘가-’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될 때 두 개의 ‘ㄱ’ 중 하나가 탈락된 형태로, 서술어의 일부인 본용언에 해당한다. 용언 어간이 그대로 부사어로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늦게’는 용언 어간 ‘늦-’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된 형

태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② ‘학교에’는 체언 ‘학교’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된 형태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③ ‘이미’는 단일어 부사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⑤ ‘곧바로’는 부사 ‘곧’과 부사 ‘바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05 근대 국어 자료 탐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거늘’은 앞 절과 뒤 절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하지만 두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홍식이’에는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방식인 끊어 적기가 적용되었다.

② ‘쨌노더니’에서 ‘ㄸ’은 합용 병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③ ‘소티를’에는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되어 있다. 이를 볼 때 현대 국어와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붙기’에서 ‘-기’는 ‘붙-’을 명사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명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매체 01

본문 112~116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③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시 관계자 인터뷰를 삽입해 공중 보행로 설치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중 보행로 설치 후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시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광장의 공중 보행로 건설은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 보행로를 설치하면 침체된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시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자의 두 번째 발화 중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중 보행로 사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를 보면, 기자는 공중 보행로와 관련된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서 보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민 1’의 발화인 ‘공중 보행로가 생기면~기대가 됩니다.’와 ‘시민 2’의 발화인 ‘공중 보행로는 너무~쁜 일입니다.’를 보면, 공중 보행로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공중 보행로 설치에 대해 ‘시민 1, 2’를 인터뷰한 내용을 삽입하여 시민들이 공중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진행자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진행자는 기자에게 공중 보행로를 대신할 수 있는 지하도 설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보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 [장면 1]을 보면 보도의 제목인 ‘○○시 △△광장에 공중 보행로 설치, 필요한가?’를 방송의 첫 부분에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면 3]을 보면 화면 하단에 ‘시민 2’의 인터뷰 내용 중 핵심 내용인 ‘공중 보행로와 관련해서 각종 사고 우려돼’라는 자막을 넣어 전달력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방송 보도 전체에서 진행자는 방송 매체의 공적 특성을 고



언어

10

종합 ①

본문 | 84~87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1 음운의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서 ‘흙’이 [흙]이라는 음성적인 변이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는 그 뒤에 ‘흙이[흙기]’, ‘흙을[흙글]’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경우이다. 자음 ‘ㄱ’ 앞에서는 ‘흙과[흑과]’와 같이 [흑]으로 소리 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의 예로 ‘흙’이 음절 끝에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흙도[흑도]’, ‘흙과[흑과]’와 같이 비음 외의 자음 앞에 사용될 때, ‘흙’이 [흑]으로 소리 난다. 이와 같이 비음 앞이나 ‘ㄱ, ㅋ, 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사용될 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흙’이 [흑]으로 소리 난다.

③ ㉢의 예로 ‘흙만[흑만]’, ‘흙냄새[흑냄새]’, ‘흙일[흑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음 앞이나 ‘ㄱ, ㅋ, ㆁ’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흙’이 [흑]으로 소리 난다.

④ ㉣의 예로 ‘밥’이 음절 끝에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밥도[밥도]’, ‘밥풀[밥풀]’과 같이 비음 외의 자음 앞, 또는 ‘밥을[바블]’과 같이 모음 앞에 사용될 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밥’이 [밥]으로 소리 난다.

⑤ ㉤의 예로 ‘밥물[밤물]’을 들 수 있듯이, ‘밥’은 비음 앞에서는 [밤]으로 소리 난다.

02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 들어갈 한자어로는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다.’의 뜻을 지닌 ‘고정(固定)하다’가 적합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움직이고 있던 것이 멎거나 그치다.’의 뜻을 지닌 ‘정지(停止)하다’가 유의 관계의 한자어로 적절하다.

② ‘중도에서 끊다.’의 뜻을 지닌 ‘중단(中斷)하다’가 유의 관계의 한자어로 적절하다.

④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의 뜻을 지닌 ‘성숙(成熟)하다’가 유의 관계의 한자어로 적절하다.

⑤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지다.’의 뜻을 지닌 ‘성장(成長)하다’가 유의 관계의 한자어로 적절하다.

03 안은문장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달리다’의 어근에 명사 파생 접사 ‘-기’를 붙인 것으로, 그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은 ‘찍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를 붙인 것으로, 그 뒤에 보조사 ‘는’을 붙여 ‘(주체가) (나무늘보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먹이를 먹는 것을) 사진으로 찍다.’라는 문장이 ‘어려운 일이다.’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기능하게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해결했-’에 명사형 어미 ‘-(으)ㄴ’을 붙인 것으로, 그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문장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기능하게 하고 있다.

② ㉡은 ‘자다’의 어근에 명사 파생 접사 ‘-ㅁ’을 붙인 것으로, 관형어 ‘달콤한’의 수식을 받으면서 목적격 조사를 취해서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은 ‘먹다’의 어근에 명사 파생 접사 ‘-이’를 붙인 것으로,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은 부사어 ‘빨리’의 꾸밈을 받는 말로 ‘달리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를 붙인 것이고, 그 뒤에 주격 조사 ‘가’를 붙여 해당 겹문장이 안은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⑤ ㉤은 ‘(주어가) 혼자서 (음식을) 다 먹다.’라는 문장에서 ‘먹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를 붙이고 그 뒤에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 이 문장이 안은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04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관형사절 ㉡에서 생략된 주어는 관형사절 ㉣가 꾸며 주는 체언인 ‘단비(가)’이고, 관형사절 ㉣에서 생략된 주어도 관형사절 ㉣가 꾸며 주는 명사구인 ‘해양 생태계(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문장 안에서 ‘단비’를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고, ㉡는 문장 안에서 ‘해양 생태계’를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이들은

모두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므로 생략되어도 전체 문장 ㉠과 ㉡는 문장으로 성립할 수 있다.

㉢ ㉣는 용언 ‘내리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뒤 목적격 조사 ‘를’이 연결되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기능하고 있다.

㉤ ㉥는 ‘위하다’의 어간에 종속적 연결 어미 ‘-여’가 붙은 것으로, ㉥와 ㉦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와 ㉦를 포함한 겹문장으로, ‘그 과학자는’이라는 공통적인 주어 가 문장에서 한 번만 나타나고 있다.

### 05 중세 국어의 이해

답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제’는 대명사 ‘저’의 뒤에 반모음 ‘j’의 형태가 붙은 것이다. 여기에서 반모음 ‘j’는 ‘i’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붙어서 관형격 조사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리’는 ‘i’ 모음으로 끝난 체언으로, ‘드외느니라(되느니라)’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보격 조사는 영 형태(0)이다.
- ② ‘비취요미’는 ‘비취움’ 뒤에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를 이어 적기한 것으로, ‘곧ㅎ나라(같으나라)’의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시조(始祖)’는 한자이면서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i’를 붙인 형태로 ‘사르샤(사시어)’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백성(百姓)’은 한자이면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를 붙인 형태로 ‘니르고져(말하고자)’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QR코드 앱을 사용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 수능 기출의 미래

두꺼운 분량, 답답한 해설에서 벗어나  
학습 효율을 극대화한 기출문제집

언어	11	종합 2	본문   88~92쪽	
01 ㉢	02 ㉤	03 ㉥	04 ㉥	05 ㉤
06 ㉥				

###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에서는 인접한 두 음운의 조음 방법이 같아지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인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에서는 이러한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에서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 ② ㉠과 ㉢에서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④ ㉢과 ㉤에서 모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 ⑤ ㉢과 ㉤에서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02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답 ㉤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을 참고할 때, ‘시계’는 [시계] 또는 [시계]로 발음할 수 있다. ㉤을 참고할 때,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므로 ‘희망’은 [희망]으로만 발음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을 참고할 때,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 또는 [안중근 의사에 의거]로 발음할 수 있다.
- ② ㉠, ㉢을 참고할 때, ‘혜성’의 ‘혜’는 ‘예, 레’ 이외의 ‘ㄱ’이므로 [혜성] 또는 [혜성]으로 발음할 수 있지만 ‘가져’는 ㉡에 따라 [가져]로만 발음해야 한다.
- ③ ㉠, ㉢을 참고할 때, ‘예의범절’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예의범절] 또는 [예이범절]로 발음할 수 있다. ㉤을 참고할 때 ‘처준다’는 [처준다]로만 발음한다.
- ⑤ ㉠, ㉢, ㉤을 참고할 때, ‘띄어쓰기의 예시’는 [띄어쓰기의 예시], [띄어쓰기에 예시]로 발음할 수 있다. ㉤을 참고할 때, ‘띄어쓰기’의 ‘띄’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이므로 [띠]로 발음해야 한다. ㉤을 참고할 때, ‘띄어쓰기’의 ‘의’는 조사이므로 [의] 또는 [예]로 발음할 수 있다.



03 국어사전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하얗다’[4]는 밤에도 날이 환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밤을 새웠다는 의미로,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얼굴빛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까맣다’[3]도 어휘의 의미가 인지·기억과 관련되어 확장된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얼굴빛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얗다’[1]은 ‘눈이나 밀가루’라는 사물에, ‘까맣다’[1]은 ‘밤하늘’이라는 현상에 나타나는 색을 이용하여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 ② ‘하얗다’[1]과 ‘까맣다’[1]은 색채의 명도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서로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얗다’[2]와 ‘까맣다’[2]는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하얗다’[2]는 ‘겁에 질리거나’와 같은 감정의 변화, ‘얼굴이 핏기가 없이’라는 신체 상태와 관련되어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까맣다’[5]는 ‘놀라거나 아파서’와 같이 감정이나 신체의 상태와 관련되어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뒷산에 사람들이 하얗게 몰려들었다.’에서는 ‘하얗다’[3]의 의미가 사용되었는데, 이를 ‘까맣다’[4]와 바꾸어 ‘뒷산에 사람들이 까맣게 몰려들었다.’라고 쓸 수 있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04 보조 용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4)-ㄱ의 보조 용언은 동사 뒤에 사용되었으나 ‘싶다’를 ‘싶는다’와 같이 동사처럼 활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4)-ㄴ의 보조 용언도 동사 뒤에 사용되었지만, ‘싶는다’와 같이 동사처럼 활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되므로 ‘싶다’는 동사 뒤에 사용된 보조 형용사이다. ‘싶다’는 앞 용언의 품사와 상관없이 문장에서 보조 형용사로 사용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ㄱ에서 ‘가기도 한다’의 보조 용언 ‘하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여 동사처럼 활용되므로 <보기 1>에 따라 보조 동사로 볼 수 있다.
- ② (1)-ㄴ의 보조 용언 ‘하다’는 ‘한다’처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2)-ㄴ의 보조 용언 ‘않다’도 ‘않는다’처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러한 활용 양상

으로 미루어 (1)-ㄴ과 (2)-ㄴ의 ‘하다’, ‘않다’는 보조 형용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하다’는 (1)-ㄱ에서와 같이 본용언이 동사(‘가다’)일 때 동사처럼 활용되고, (1)-ㄴ에서와 같이 본용언이 형용사(‘예쁘다’)일 때 형용사처럼 활용된다. ‘않다’도 (2)-ㄱ에서와 같이 본용언이 동사(‘나가다’)일 때 동사처럼 활용되고, (2)-ㄴ에서와 같이 본용언이 형용사(‘쉽다’)일 때 형용사처럼 활용된다. 따라서 <보기 1>과 관련지어 볼 때 (1)-ㄱ, ㄴ과 (2)-ㄱ, ㄴ에 사용된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나 기능에 따라 활용 양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④ (2)-ㄱ에 ‘-고 있다’를 사용하여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진행형을 만들 수 있고, (3)에 ‘-고 있다’를 사용하여 ‘밝혀 두고 있다’라는 진행형을 만들 수 있으므로 (2)-ㄱ과 (3)의 보조 용언은 모두 보조 동사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05 문장의 짜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의 ‘-자’는 앞 절이 뒤 절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⑥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의 ‘-면서’는 앞 절과 뒤 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③에 해당한다.
- ② ㉒의 ‘-거든’은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조건이나 가정의 뜻을 가짐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⑤에 해당한다.
- ③ ㉓의 ‘-느라고’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이유나 원인의 뜻을 가짐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④에 해당한다.
- ⑤ ㉔의 ‘-는데’는 앞 절이 뒤 절을 말하기 위한 배경·상황을 설명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⑥에 해당한다.

06 중세 국어의 표기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의 ‘옛’은 ㉑과 ㉒에 의하면 초성에 쓰이는 글자인 ‘ㅅ’이 종성에도 사용된 것이면서 이를 ‘ㅅ’으로 바꾸어 ‘옛’으로도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ㅈ’이나 ‘ㅊ’을 ‘옛’의 종성 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㉓의 초성(‘ㅁ’) 표기에서 ㉔의 방식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글자를 합해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㉞에서 ㉝의 방식을 적용하여 ‘ㅇ’을 순음 ‘ㅂ’ 아래 이어 쓴 순경음 ‘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㉞에서 ㉝의 방식을 적용하여 같은 글자인 ‘ㅅ’을 합해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㉞에서 ㉝의 방식을 적용하여 초성을 표기하기 위해 만든 글자 중 하나인 ‘ㅇ’을 중성 표기에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언어</b>	<b>12</b>	<b>종합 ③</b>	본문   93~96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①	05 ⑤

**01 직접 분석(C 분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구인 ‘착한 친구 동생’을 예로 들어 보자. 이 구는 ‘착한’, ‘친구’, ‘동생’이라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라는 내용을 볼 때, ‘착한 친구 동생’이라는 구의 계층적 구조에서 ‘착한’, ‘친구’, ‘동생’은 모두 구성 요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우선 ‘착한’이 ‘친구’를 수식하고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 ‘한편 ‘착한’이 ‘친구 동생’을 수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볼 때, ‘착한 친구 동생’은 ‘착한’이 수식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두 구성 요소가 결합한 ‘착한 친구’라는 하위 구조에, 또 다른 구성 요소 ‘동생’이 결합하여 ‘착한 친구 동생’이라는 상위 구조를 형성했다고 볼 경우 [착한+ 친구]+[동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두 구성 요소가 결합한 ‘친구 동생’이라는 하위 구조에, 또 다른 구성 요소 ‘착한’이 결합하여 ‘착한 친구 동생’이라는 상위 구조를 형성했다고 볼 경우 [착한]+[친구+동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③ ‘이 문장은 [나는]+[[오빠와+ 언니를]+ 불렀다.]’로 분석되어 ‘내가 오빠와 언니, 둘을 불렀다.’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볼 때, [나는]+[[오빠와+ 언니를]+ 불렀다.]’로 분석하면 ‘나’가 부른 사람은 두 명임을 알 수 있다.
- ④ ‘이 문장은 [나는+ 오빠와]+[[언니를]+ 불렀다.]’로 분석되

어 ‘나는 오빠와 함께, 언니를 불렀다.’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볼 때, [나는+ 오빠와]+[[언니를]+ 불렀다.]’로 분석하면 ‘언니’를 부른 사람은 ‘나’와 ‘오빠’임을 알 수 있다.

**02 직접 분석(C 분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저 학생 사진’에서 ‘저’가 수식하는 말이 ‘학생’인 경우로 해석하면, ‘저 학생’이라는 하위 구조에, 또 다른 구성 요소 ‘사진’이 결합한 c로 계층적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반면 ‘저’가 수식하는 말이 ‘학생 사진’인 경우로 해석하면, ‘학생 사진’이라는 하위 구조에, 또 다른 구성 요소 ‘저’가 결합한 b로 계층적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03 품사, 문장 성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㉞: ‘나에게 온 그들에게 물었다.’와 같이 ㉝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을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섯들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와 같이 ㉞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을 결합할 수 없다.
- ㉞: ㉞, ㉝은 모두 관형사이다. 즉 관형사가 문장에서 조사나 어미의 결합 없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㉞: ㉞의 품사는 수사, ㉞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그리고 ㉝의 품사는 관형사, ㉞의 품사는 대명사이다. ‘다섯’, ‘그’는 ㉞, ㉞이나 ㉝, ㉞에서 형태가 동일하지만 품사는 다르므로, 품사가 통용되는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㉞: ㉞의 ‘다섯’이나 ㉝의 ‘그’를 생략하면 모두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라는 문장이 되어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㉞의 ‘다섯’이나 ㉝의 ‘그’는 모두 관형어로,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성분에 해당한다.

**04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제38항 규정은 ‘ㅏ, ㅑ, ㅓ, ㅕ’로 끝난 어간 뒤에 ‘-이어’가 결합하여 모음이 줄어들 때는 준 대로 적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트이어’의 경우 ‘ㅓ’와 ‘-이어’의 ‘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tijk’가 될 수도 있고, ‘-이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트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tijk’로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제38항 규정, 규정에 대한 설명 ‘-이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여’가 될 수도 있다.’를 고려할 때, ‘짜이어’에서 ‘-이어’가 ‘-여’로 줄어든 ‘짜여’는 제38항 규정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 ③ 제38항 규정, 규정에 대한 설명 ‘ㄱ, ㄴ, ㄷ, ㄹ’와 ‘-이어’의 ‘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개, 고, 구, 나’가 될 수도 있고’를 고려할 때, ‘누이어’에서 ‘ㄴ’과 ‘-이어’의 ‘이’가 줄어든 ‘누어’는 제38항 규정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 ④ 제39항 규정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아’에서 ‘-지’와 ‘않-’이 줄어든 ‘그렇잖아’는 제39항 규정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 ⑤ 제39항 규정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을 고려할 때, ‘편하지 않아’에서 ‘-하지’ 뒤에 ‘않-’이 줄어든 ‘편잖아’는 제39항 규정이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05 국어의 변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째’에서 ‘때’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ㅈ’이 ‘ㅊ’으로 변화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어두의 ‘ㅅ’이 반모음 ‘j’ 앞에서 탈락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ㅁ술’에서 ‘ㅁ을’로의 변화를 통해 반치음 ‘ㅅ’이 소실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② ‘ㅁ을’에서 ‘ㅁ을’로의 변화를 통해 둘째 음절에 쓰인 ‘ㄷ’가 ‘ㄴ’로 변화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③ ‘ㅁ을’에서 ‘마을’로의 변화를 통해 첫째 음절에 쓰인 ‘ㄷ’가 ‘ㅌ’로 변화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④ ‘뻬’에서 ‘째’로의 변화를 통해 어두 자음군 ‘ㅃ’에서 ‘ㅍ’이 탈락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언어	13	종합 4	본문   97~99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①
			05 ④

01 단어의 의미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틈’은 [+시간]의 의미 성분을 가지기도 하지만 [-시간]의 의미 성분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겨를’은 [+시간]의 의미 성분만을 가진다. ‘틈’과 ‘겨를’이 공통적으로 [+시간]의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서다’의 경우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데, 각각의 쓰임에서 의미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의어는 각기 다르다고 하였다. ‘(기차가) 서다’의 반의어는 ‘(기차가) 가다’이고 ‘(체면이) 서다’의 반의어는 ‘(체면이) 깎이다’이다.
- ② [+포유류], [+동물], [+구체물] 등의 의미 성분은 모두 [+인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잉여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어떤 의미 성분이 다른 의미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잉여 성분이 생긴다는 뜻이다. 어떤 단어가 [+포유류]의 의미 성분을 가질 때 [+동물]은 잉여 성분이 될 것이다.
- ③ 어떤 단어가 상위어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둘 이상의 단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 ‘닭’이 상위어인지 아닌지는 ‘닭’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아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 ⑤ 반의어는 여러 의미 성분 중 하나만 반대될 때 성립한다고 하였으므로, [+남성], [+성년]의 의미 성분을 가진 ‘총각’과 [-남성], [-성년]의 의미 성분을 가진 ‘소녀’는 반의어로 볼 수 없다.

02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하위어의 지시 대상은 당연히 상위어의 지시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위어가 하위어를 포함하지만 당연히 하위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상위어와 하위어의 이러한 관계를 일방 함의 관계라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스포츠)은 ㉡(축구)의 상위어이다. 따라서 ㉡은 ㉢을 포함하므로 ㉢이 ㉡을 함의하는 일방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의 한 종류이므로 ㉠이 ㉡의 하위어이다.
- ② ㉢의 행위를 할 때 목적어로서 ㉡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과 ㉢ 사이에 상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하 관계는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

합되는 의미 관계여야 한다.

㉠이 ㉡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을 ㉠의 상위어라고 할 수 없다. 하위어가 상위어에 포함되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 ㉤의 상위어이다. ㉡보다 ㉤이 [+ 동물], [+ 조류] 등의 의미 성분을 더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의미 성분의 수가 더 많다.

03 문장 성분별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형은 가방에 책을 넣었다.’에서 ‘넣다’는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또한 ‘언니는 병마와 힘겹게 싸웠다.’에서 ‘싸우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의 ‘넣다’는 부사어와 목적어를, ㉢의 ‘삼다’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의 ‘삼다’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의 ‘넣다’는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의 ‘다르다’, ㉡의 ‘싸우다’는 모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의 ‘다르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 ㉣의 ‘삼다’는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없다’는 [업:따]로 발음된다. 이는 겹받침 ‘ㅃ’이 자음 앞에서 뒤의 자음을 탈락시켜 [ㅂ]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또한 ‘핥다’는 [할따]로 발음된다. 겹받침 ‘ㅍ’이 자음 앞에서 겹받침의 뒤의 자음을 탈락시켜 [ㄹ]로 발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⑤ ‘뺨다’는 [뺨:따]로 발음된다. ‘뺨’ 중 ‘ㅃ’만 발음되는 것으로 볼 때, 겹받침의 발음에서 앞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뺨히다’는 [뺨피다]로 발음된다. 겹받침 ‘ㅃ’에서 ‘ㅃ’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축약되어 [ㅍ]으로 발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앉히다’는 [안치다]로 발음된다. 겹받침 ‘ㄷ’에서 ‘ㄷ’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축약되어 [ㅈ]으로 발

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05 품사의 분류 기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산나물, 곤잘, 덧신, 이리저리’는 불변어, ‘녹이다, 귀엽다’는 가변어이다. 한편 ‘산나물, 덧신’은 체언, ‘녹이다, 귀엽다’는 용언, ‘곤잘, 이리저리’는 수식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 ‘‘체언’ / ‘용언’이 들어가는 것이나 ㉡에 ‘‘명사’ / ‘동사’ / ‘관형사’가 들어가는 것 모두 적절하지 않다.

② ㉢에 ‘‘체언’ / ‘용언’이 들어가는 것이나 ㉣에 ‘‘명사’ / ‘형용사’ / ‘부사’가 들어가는 것 모두 적절하지 않다.

③ ㉠에 ‘‘불변어’ / ‘가변어’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 ㉡에 ‘‘명사’ / ‘동사’ / ‘관형사’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 ‘‘명사’ /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에 ‘‘체언’ / ‘용언’ / ‘수식언’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

언어	14	종합 ⑤	본문   100~103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5 ④	

01 국어의 변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15세기 국어에서는 ‘ㅅ, ㅆ, ㅈ’의 음가가 치조음이었으므로, 15세기 국어에서는 ‘초’의 ‘ㅈ’과 ‘쵸’의 ‘ㅈ’이 둘 다 음가가 경구개음에 해당했을 것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5세기 국어에서는 ‘ㅅ, ㅆ, ㅈ’의 음가가 치조음이었으나 근대에 널리 일어난 구개음화를 거치면서 이들의 음가가 경구개음으로 바뀌었으므로, ‘ㅅ, ㅆ, ㅈ’의 조음 위치는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서로 다르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②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단위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ㅅ, ㅆ, ㅈ’ 뒤의 j-계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ㅅ, ㅆ, ㅈ’ 뒤에 j-계 이중 모음이 이어진 음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④ 문헌에서 ‘젓가락’을 의미하는 단어가 ‘저’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고, 15세기 국어에서는 ‘저’와 ‘저’가 발음상으로 구별 되었으리라는 서술을 통해 당시에는 ‘저’를 [저]로 발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서술이다.

⑤ 외래어 표기법에서 ‘juice’를 ‘주스’로 적도록 한 것은 ‘ㅈ, ㅉ, ㅊ’ 뒤에서 j-계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에 따라 국어 화자의 실제 발음이 ‘주스’가 아니라 ‘주스’라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02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ㄱ. ‘펼쳐’가 ‘펼치-+ -어’가 줄어서 된 형태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해 ‘펼쳐’로 표기하는 것은 올바른 표기에 해당하고, ‘쳐’는 [치]로 발음되므로 [펼치]로 발음하는 것은 올바른 발음에 해당한다.

ㄴ. ‘기름져서’가 ‘기름지-+ -어서’가 줄어서 된 형태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해 ‘기름져서’로 표기하는 것은 올바른 표기에 해당하고, ‘저’는 [저]로 발음되므로 [기름져서]로 발음하는 것은 올바른 발음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ㄷ. ‘묻혀’가 ‘묻히-+ -어’가 줄어서 된 형태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해 ‘묻혀’로 표기하는 것은 올바른 표기에 해당하나, [무쳐]가 아니라 [무치]가 올바른 발음이다.

ㄹ.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television’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표기하므로, ‘텔레비전’은 올바른 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조사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그런 말은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니다.’에서 ‘로서’가 붙은 말인 ‘친구’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 아니며,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에서 ‘로써’가 붙은 말인 ‘말’도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 아니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만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를 쓸 때는 ‘로서’를 선택하고, 어떤 일의 수단을 나타내는 격 조사를 쓸 때는 ‘로써’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가 붙은 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료를 통해 문장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를 쓸 때는 앞말이 ‘오늘’과 같이 받침이 있으면 ‘은’을 선택하고, 앞말이 ‘어제’와 같이 받침이 없으면 ‘는’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가 붙을 말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자료를 통해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를 쓸 때는 앞말이 ‘꽃’과 같이 무정 명사이면 ‘에’를 선택하고, 앞말이 ‘돼지’와 같이 유정 명사이면 ‘에게’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가 붙을 말이 유정 명사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③ 자료를 통해 그 대상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를 쓸 때는 앞말이 ‘친구’와 같이 높임의 대상이 아니면 ‘가’를 선택하고, 앞말이 ‘아버지’와 같이 높임의 대상이면 ‘께서’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가 붙을 말이 높임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자료를 통해 인용되는 말을 나타내는 격 조사를 쓸 때는 앞말이 ‘소풍을 가요.’와 같이 직접 인용되는 말이면 ‘라고’를 선택하고, 앞말이 ‘소풍을 가자’와 같이 간접 인용되는 말이면 ‘고’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가 붙을 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다.

04 국어사전의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견다<sup>2</sup>’는 항상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견다<sup>1</sup>’은 [2]에서는 목적어가 필수적이지만 [1]에서는 목적어 없이도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견다<sup>1</sup>’과 ‘견다<sup>2</sup>’가 둘 다 타동사로만 쓰인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견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의 ‘견다’는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다.’의 의미이므로, ‘견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를 ‘견다<sup>1</sup>’의 [1]을 활용한 관용 표현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③ ‘견다<sup>2</sup>’의 ‘3은 ‘거두다’의 준말이므로, 그 용례인 ‘비가 오는 바람에 들일을 걷고 돌아왔다.’의 ‘걷고’를 본말인 ‘거두고’

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④ 활용형 ‘걸어’와 ‘걸으니’, ‘건어’와 ‘건으니’를 고려하면, ‘-어라’가 결합한 ‘건다’와 ‘건다<sup>2</sup>’의 적절한 활용형은 각각 ‘걸어라’와 ‘건어라’이다.

⑤ 활용형 ‘걷는[건:는]’과 ‘걷는[건는]’을 고려하면, ‘-는다’가 결합한 ‘건다’와 ‘건다<sup>2</sup>’의 적절한 활용형 발음은 각각 ‘걷는다[건:는다]’와 ‘걷는다[건는다]’이다.

## 05 답화의 특성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 1>에서 보듯이, 대화 함축은 답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발화나 맥락과 상반되면 쉽게 취소될 수 있다. ‘연경’의 “노란 자전거가 도서관 앞에 있던데.”라는 발화는 ‘승아’가 도서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경’이 “승아 요즘은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닐 때도 많아.”라고 덧붙인 데서 ‘승아’가 도서관에 있으리라는 함축은 쉽게 취소된다. 따라서 ㉠은 ‘승아’가 도서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함축을 취소하고 ‘승아’가 도서관에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승아’가 국어 숙제를 이미 다 했을 것이라는 함축은 앞선 답화의 흐름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그러한 함축을 취소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연경’이 말한 것은 노란 자전거가 도서관 앞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승아’가 도서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연경’이 말한 것은 국어 숙제는 했다는 것이고 수학 숙제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말하지 않았으나, 만약 수학 숙제도 했다면 ‘연경’은 “둘 다 했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연경’이 수학 숙제는 아직 안 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연경’이 말한 것은 백만 년 만에 시집을 샀다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연경’이 정말 백만 년 만에 시집을 산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강조를 통해 발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과장 방법으로, ‘연경’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아주 오랜만에 시집을 샀다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연경’이 말한 것은 자기가 내일 시험을 본다는 것이고, 이는 지금은 내일 볼 시험을 준비해야 하므로 영화를 보러 갈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

15

종합 6

본문 | 104~108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④

05 ②

06 ⑤

## 0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오는 대상을 높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5세기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으며,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주로 ‘모시다, 드리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된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된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중 ‘-습-’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였고, ‘-술-’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였다. 따라서 어간의 끝소리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보스븐’에 쓰인 선어말 어미 ‘-술-’과 (나)의 ‘듣즈븐’에 쓰인 선어말 어미 ‘-졸-’은 둘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에 해당한다.

⑤ (다)의 ‘보스븐’에 쓰인 선어말 어미 ‘-술-’은 ‘샤름’이 아니라 ‘무량수불’을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 02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어간 ‘뉘-’은 ‘ㅂ’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으니’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술-’이 와야 하고, 활용형은 ‘뉘스븐’이 되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간 ‘듣-’은 ‘ㄷ’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고’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졸-’이 오고, 활용형도 ‘듣졸고’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어간 ‘츠-’는 ‘ㄷ’로 끝나고, 어말 어미 ‘-고’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도 ‘츠습고’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츠다’는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니다.'라는 뜻이다.

③ 어간 '언-'은 'ㄷ'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아'는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줄-'이 오고, 활용형도 '언즈빠'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어간 '막-'은 'ㄱ'으로 끝나고, 어말 어미 '-거늘'은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이 오고, 활용형은 '막습거늘'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아니오'를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아니-'의 모음 'ㅣ' 뒤에 오는 어미 '-오'에 반모음 'j'가 덧붙은 예이므로, 반모음 'w'가 덧붙은 예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뛰어'의 발음이 [뛰어/뛰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준 발음법 제22항에서 '되어', '피어'와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이라고 하였으므로, '뛰어'를 [뛰어]로 발음하는 것이 규범 원칙이라는 서술은 적절하다.

②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모음 'ㅣ' 뒤에 오는 어미 '-오'에 반모음 'j'가 덧붙은 발음인 [요]를 표준 발음으로 허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준 발음법 제22항 [붙임]에서 '이오'를 [이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맛집이오'를 [맛찌비요]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③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어간 모음이 'ㅣ'인 경우에는 반모음 'j'가 첨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를 [되여]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되-'의 모음 'ㅣ'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은 예이므로 적절한 서술이다.

④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어간 모음이 'ㅣ'인 경우에는 반모음 'j'가 첨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피어'를 [피여]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피-'의 모음 'ㅣ'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은 예이므로 적절한 서술이다.

04 품사의 특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어쩔 줄 몰랐다'에서 '어쩔 줄'은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존 명사 '데'는 '의지할 데'처럼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의존 명사 중에는 '데'처럼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이 없는 것이 있는 반면, '바람'처럼 제약이 심한 것이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참고로, 국어사전에서는 의존 명사 '바람'에 대해서 "(--는 바람에' 구성으로 쓰여)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③ 의존 명사 '나위'는 주로 뒤에 서술어로 '없다'가 오는 구성으로 쓰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고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인데, 둘의 형태가 같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05 문장의 짜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ㄱ. 주어('다른 분들은')와 서술어('계세요')의 관계가 한 번만 있는 홑문장이고, 관형사('다른')가 쓰이고 있고, 주체를 높이는 서술어('계세요')가 쓰이고 있다.

ㄷ. 주어('아버지께서는')와 서술어('해내셨다')의 관계가 한 번만 있는 홑문장이고, 관형사('무슨')가 쓰이고 있고, 주체를 높이는 서술어('해내셨다')가 쓰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ㄴ. 주체를 높이는 서술어('많으시다')가 쓰이고 있으나, 관형사가 없고 겹문장이다. '우리는'은 관형사가 아니라 대명사이고, '인정이 많으시다'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이므로 이 문장은 겹문장이다.

ㄹ. 관형사('모든')가 쓰이고 있고, 주체를 높이는 서술어('말씀하셨습니다')가 쓰이고 있으나 겹문장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가 인용절(간접 인용)이므로 이 문장은 겹문장이다.

06 담화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여기'는 화자(B)와 청자(A)의 눈에 현재 보이는 장소를 가리키고, '거기'는 앞에 나온 '심청이가 입원한 병원'을 대응적으로 가리킨다. 따라서 '거기'가 A가 언급한 '심청이가 입원한 병원'을 대신하여 쓰인 것이고, '여기'가 A와 B가 보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책'은 화자(A) 가까이 있는 책을 가리키고, '그 책'은

청자(A) 가까이에 있는 책을 가리키므로, ‘이 책’과 ‘그 책’은 모두 A 가까이에 있는 책을 가리킨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② ‘저 구름’은 현재 화자(A)와 청자(B)의 눈에 함께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 구름’은 현재 A와 B의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③ 화자와 청자 모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어제 산 청바지’)을 가리키기 위해 ‘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옷’은 현재 A와 B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④ ‘절때’는 A와 B가 약속을 했던 과거의 어느 때를, ‘이때’는 A와 B가 대화 중인 바로 지금의 때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절때’는 A가 상기하는 과거의 시간을, ‘이때’는 B의 발화 시점을 가리킨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언어	<b>16</b>	종합 ①	본문   109~113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②	
06 ②					

### 01 국어의 변천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현대 국어의 ‘해님’은 명사 ‘해’에 접미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햇님’이 아닌 ‘해님’이 된다. ‘해님’은 ‘님’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말이 아니어서 ‘해님’을 [해님]으로 발음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님’은 [해님]이 아니라 [해님]으로 발음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선행하는 체언이 유정물일 경우와 무정물일 경우, 존칭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의’만 사용된다. 따라서 중세 국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가 선행하는 체언의 성격과 관계없이 고정되어 쓰인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② 현대 국어의 ‘물고기’를 [물꼬기]로 발음하는 것은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세 국어의 ‘물고기’에 있던 ‘ㅅ’이 관형격 조사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현대 국어의 합성 명사에 그 흔적만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물고기’를 [물꼬기]로 발음하는 것은 중세 국어에서의 ‘물고기’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③ 중세 국어의 ‘빗물(←비+ㅅ+물)’은 관형격 조사 ‘ㅅ’이 나타난 단어이고, 현대 국어의 ‘빗물’은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는 합성어이면서 ‘ㅅ’이 표기상으로도 나타나는 단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빗물’과 중세 국어의 ‘빗물’은 둘 다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였던 ‘ㅅ’이 나타난 단어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④ 현대 국어의 ‘소고기’는 앞말인 ‘소’가 유정물이어서 단어 형성 과정에서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ㅅ’이 쓰이지 않은 말이다. 그러므로 ‘소고기’는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꼬기]로 발음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소고기’를 [소꼬기]로 발음한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 02 국어의 변천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탐구 활동과 자료를 통해, 합성어를 이룰 때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시간, 장소, 용도, 기원과 같은 의미 관계에 있으면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물불’은 ‘강산, 눈발, 손발’ 등처럼 선행 요소(‘물’)와 후행 요소(‘불’)가 의미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는 합성어이므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사이에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된소리되기도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역사적으로 선행 요소가 무정물일 때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이기는 했지만 ‘물불’은 ‘물고기[물꼬기]’ 등과 달리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므로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물불’의 선행 요소(‘물’)는 높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물불’을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물불’이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지, ‘물불’의 선행 요소(‘물’)가 유성음인 ‘ㄹ’로 끝나는 음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니다.

⑤ ‘물불’의 선행 요소(‘물’)가 후행 요소(‘불’)를 수식하는 관계에 놓여 있지 않고 ‘물불’이 파생어인 것도 아니다.



03 로마자 표기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로마자 표기인 'yo'와 'ke'의 로마자 표기인 'ye'에는 모두 로마자 'y'가 포함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설명]에서 로마자 표기에서 반모음 'j'를 지닌 이중 모음은 'y'를 사용하여 표기한다고 하였으므로 로마자 'y'가 반모음 'j'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yo'와 'ke'의 로마자 표기는 서로 다른 반모음이 아니라, 서로 같은 반모음과 서로 다른 단모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서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로마자 표기인 'yu'는 반모음 'j'에 대응하는 로마자인 'y'와 단모음 'u'에 대응하는 로마자인 'u'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절한 서술이다.
- ② ㉢의 로마자 표기인 'wae'는 반모음 'w'에 대응하는 로마자인 'w'와 단모음 'e'에 대응하는 로마자인 'ae'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절한 서술이다.
- ③ ㉣의 로마자 표기인 'ya'와 'na'의 로마자 표기인 'wa'에는 모두 로마자 'a'가 포함되어 있는데, 로마자 표기에서 'a'는 국어의 단모음 'ㅏ'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ㅏ'와 'ㅑ'의 로마자 표기는 두 이중 모음이 서로 같은 단모음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 ⑤ ㉤의 로마자 표기는 'ui'이고, 'i'의 로마자 표기는 'i'인데, 'ㄴ'은 'i'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ㄴ'과 'i' 두 모음이 동일하게 'i'로 소리 날 때도 로마자 표기는 항상 다르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04 문장 성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의 서술어 '잡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의 서술어 '잡혔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므로 '잡혔다'는 '잡았다'와 달리 세 자리 서술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별이 반짝인다.)의 서술어 '반짝인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나, 형태가 동일한 서술어라도 문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다를 수 있다. '아이들이 눈망울을 반짝인다.'의 서술어 '반짝인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적절한 서술어이다.

② ㉢(등불이 밝다.)의 서술어 '밝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누나가 등불을 밝혔다.'의 서술어 '밝혔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밝혔다'는 '밝다'와 달리 두 자리 서술어라는 서술은 적절하다.

④ ㉣(그는 군인이 아니다.)의 서술어 '아니다'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주어 외에도 보어를 더 요구한다. 그리고 '얼음이 물이 되다.'의 서술어 '되다'도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주어 외에도 보어를 더 요구하므로, '얼음이 물이 되다.'의 서술어 '되다'를 두 자리 서술어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⑤ ㉤(누나가 동생에게 물을 주었다.)의 서술어인 타동사 '주었다'는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주어, 목적어 외에도 부사어를 더 요구한다. 그리고 '그녀는 방학이면 아이들을 시골에 보냈다.'의 서술어 '보냈다'도 주어, 목적어 외에도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그녀는 방학이면 아이들을 시골에 보냈다.'의 서술어 '보냈다'를 세 자리 서술어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05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무'를 상위어, '뿌리'를 하위어로 볼 수 없다. 즉 두 단어 간에 상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무'와 '뿌리'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새'는 상위어, '비둘기'는 하위어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하 관계의 예로 적절하다.
- ③ '꽃'은 상위어, '장미'는 하위어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하 관계의 예로 적절하다.
- ④ '물고기'는 상위어, '갈치'는 하위어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하 관계의 예로 적절하다.
- ⑤ '구기'는 상위어, '축구'는 하위어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하 관계의 예로 적절하다.

06 고대 국어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길동군'의 '길'을 표기하기 위해 '永(길 영)'자를 이용하는 것은 '永'자를 음과 관계없이 '길'이란 말을 나타내기 위해 그 의미만을 취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나’의 ‘소’를 표기하기 위해 ‘素(힐 소)’ 자를 이용하는 것은 ‘素’ 자를 그 의미와는 관계없이 ‘소’라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 음만을 취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③ ‘거칠부’의 ‘거칠’을 표기하기 위해 ‘荒(거칠 황)’ 자를 이용하는 것은 ‘荒’ 자를 음과 관계없이 ‘거칠’이란 말을 나타내기 위해 그 의미만을 취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④ ‘불구내’의 ‘불’을 표기하기 위해 ‘弗(아닐 불)’ 자를 이용하는 것은 ‘弗’ 자를 그 의미와는 관계없이 ‘불’이라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 음만을 취한 것이므로 ㉠에 해당하고, ‘赫(붉을 혁)’ 자를 이용하는 것은 ‘赫’ 자를 음과 관계없이 ‘불’이란 말을 나타내기 위해 그 의미만을 취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⑤ ‘득오실’의 ‘실’을 표기하기 위해 ‘失(잃을 실)’ 자를 이용하는 것은 ‘失’ 자를 그 의미와는 관계없이 ‘실’이라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 음만을 취한 것이므로 ㉠에 해당하고, ‘실포’의 ‘실’을 표기하기 위해 ‘絲(실 사)’ 자를 이용하는 것은 ‘絲’ 자를 음과 관계없이 ‘실’이란 말을 나타내기 위해 그 의미만을 취한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b>매체</b>	<b>01</b>	본문   114~119쪽			
01 ㉢	02 ㉤	03 ㉥	04 ㉠	05 ㉡	

**01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앵커가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심 화제인 피라미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는 발화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앵커의 두 번째 발화를 보면 앵커가 시청자도 피라미드의 정확한 뜻을 궁금해할 것이라 생각해 직접 사전을 찾아 알려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앵커의 일곱 번째 발화를 보면 앵커가 피라미드의 경사 각도와 관련한 이 교수의 질문에 자신이 답으로 제시한 배경지식(약 51도)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 교수의 세 번째 발화를 보면 이 교수가 “각뿔은 정확히 어떤 도형을 가리키는 것인가요?”라는 앵커의 질문에 대한 답

으로 앵커에게 각뿔의 뜻을 알려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교수의 첫 번째 발화를 보면 이 교수가 앵커에게 피라미드의 뜻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고, 이 교수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로열 이집트 큐빗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이 교수의 여섯 번째 발화를 보면 이 교수가 앵커에게 쿠푸 왕의 대피라미드의 경사 각도를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이처럼 이 교수는 중심 화제인 피라미드와 관련된 여러 질문을 앵커에게 던지는 방식으로 대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슬라이드 2’를 보면 ‘로열 이집트 큐빗’을 현재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피라미드의 경사 각도를 계산하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슬라이드 4’를 보면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른 모래 실험 과정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삽입되어 있다.
- ② ‘슬라이드 1’을 보면 피라미드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사각뿔 모양의 피라미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의 뜻과 함께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 ③ 각 슬라이드의 윗부분을 보면 전체 발표 제목인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수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 ④ ‘슬라이드 3’을 보면 본문 내용을 ‘피라미드에 지구가 담겨 있다?’라는 의문문 형식으로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3 언어적 특성과 파급력**

답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슬라이드 5’의 내용은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수학’이라는 발표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 아니므로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슬라이드 1’에 피라미드의 수를 제작 연도별로 정리한 표를 추가하는 것은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는 일과 관련이 없다.
- ② ‘슬라이드 2’에 사용된 ‘로열 이집트 큐빗’이라는 용어는 (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학생 수용자가 이해하기에 쉬운 용어로 대체할 수 없다.
- ③ ‘슬라이드 3’에 사용된 공식을 처음으로 증명한 수학자의

- ② ㉞: ‘나’는 ‘拿’의 소리, ‘가’는 ‘行’의 뜻, ‘자’는 ‘尺’의 뜻을 빌린 것이다.
- ③ ㉟: ‘여’는 ‘如’의 소리, ‘기’는 ‘基’의 소리를 빌린 것이다.
- ④ ㊱: ‘제’는 ‘第’의 소리, ‘발’은 ‘足’의 뜻을 빌린 것이다.

## 02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도련하다’와 ‘두련하다’ 중 ‘두련하다’의 어근 ‘두련’은 모음 조화를 지켰으나, ‘도련하다’의 어근 ‘도련’에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모두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없다. ‘도’와 ‘두’의 대립을 통해서 ㉡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누네’는 ‘눈+에’, ‘고대’는 ‘곧+에’이다. 이들은 ‘명사+조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각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끼리의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안좁’은 ‘안-+-음’, ‘업숨’은 ‘업-+-음’이다. 이들은 ‘어간+어미’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각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아드릭’은 ‘아들+익’, ‘구루미’는 ‘구름+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명사 ‘아들’과 ‘구름’은 각각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의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도 각각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끼리의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저거’는 ‘적-+-어’, ‘쟈가’는 ‘쟈-+-아’이다. 이들은 ‘어간+어미’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각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끼리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거’와 ‘쟈가’는 음성 모음 ‘ㄱ’과 양성 모음 ‘ㄱ’의 대립을 보이는 쌍이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03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 높이는 대상은 주어인 ‘내’가 아니라 목적어인 ‘포 말춤’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의 ‘썩’은 높임을 나타내는 ‘계’에 해당하며 부사어에 쓰이고 있다.
- ② ㉠은 ‘나+ㅣ’로, 모음으로 끝난 대명사 뒤에 결합한 주격 조사 ‘ㅣ’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은 ‘깨달았습니다’로 풀이되므로 듣는 이(여기서는 ‘왕’)를 높이고 있다.
- ⑤ ㉡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도리(를) 배우게 하십시오’로 풀이되므로 ㉡은 목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중세 국어의 이해와 근대 국어의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과 ㉢은 단어의 형태가 동일하며 방점 ‘:’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성조도 동일하지만, ㉠은 형용사, ㉢은 동사로 분류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③ ㉠은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 ㉣의 활용형인 ‘도코’(동-+-고), ‘도키나’(동-+-거나), ㉤의 활용형인 ‘도키늘’(동-+-거늘), ‘도토록’(동-+-도록)에는 모두 격음화(거센소리되기)가 반영되어 있다.

## 05 음운의 변천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쁘르다>무르다’에서는 양순음 ‘ㅍ’ 뒤의 평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 ‘우’로 변화하였다. 양순음이 아닌 ‘ㄹ’ 뒤의 ‘ㅡ’는 원순 모음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전혀>전혀’에서는 ‘ㅈ’의 조음 위치가 치조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변화하였으며, ‘ㅈ’ 뒤의 이중 모음 ‘ㅑ’에서 반모음 ‘j’가 탈락하여 단모음 ‘ㅑ’가 되었다.
- ② ‘ㅁ슴>마음’에서는 ‘ㅁ’이 소실되며 탈락하였다. 또 ‘ㅡ’는 첫 번째 음절에서는 ‘ㅏ’로, 두 번째 음절에서는 ‘ㅡ’로 변화하였다.
- ③ ‘더뵈>더위’에서는 ‘ㅂ’이 반모음 ‘w’로 변화하여 ‘ㅑ’와 함께 이중 모음 ‘ㅑw’를 이루었다.
- ④ ‘니르다>이르다’에서는 단어의 맨 앞에 있던 ‘ㄴ’이 ‘ㅣ’ 모음 앞에서 탈락하였다.

 언어 10	본문 251~253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③

##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감자[감자]’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담자[담:짜]’에 나타난 경음화는 어간 ‘담-’이 가진 받침 ‘ㅁ’ 뒤 ‘ㅈ’이 ‘ㅈ’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꿀잠[꿀잠]’은 순우리말이며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결전[결쩐]’에 나타난 경음화는 한자어 중 받침 ‘ㄹ’ 뒤 ‘ㅈ’이 ‘ㅈ’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 아닌 ㉡에 해당한다.

② '각자[각짜]'와 '적고[적꼬]'는 모두 파열음의 평음 '-ㄱ'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이 아닌 ㉠에 해당한다.

③ '흰색[흰쌌]'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신다[신:따]'에 나타난 경음화는 어간 '신-'이 가진 받침 'ㄴ' 뒤 'ㄷ'이 'ㅌ'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 아닌 ㉠에 해당한다.

④ '밥심[밥쌌]'과 '굽고[굽:꼬]'는 모두 파열음의 평음 '-ㅂ'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이 아닌 ㉠에 해당한다.

## 02 단어의 개념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의존 명사 '따름'은 '고마울 따름이다.', '당황할 따름이다.'처럼 주로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고,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도 '-을/-ㄴ'만이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확인되는 의존 명사의 예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존 명사 '바'는 '기여한 바가 크다.', '알던 바와 다르다.'처럼 여러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다.', '공헌하는 바가 크다.', '다를 바가 없다.' 등에서와 같이 '-은/-ㄴ', '-는', '-을/-ㄴ'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확인되는 의존 명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의존 명사 '줄'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다.', '밥을 할 줄을 알다.'처럼 주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지만,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속인 줄도 모르다.', '시간 가는 줄 모르다.', '운전할 줄 모르다.' 등에서와 같이 '-은/-ㄴ', '-는', '-을/-ㄴ'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확인되는 의존 명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존 명사 '것'은 '먹는 것이 많다.', '할 것을 하다.'처럼 여러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도 '이긴 것을 알았다.', '읽는 것을 들었다.', '집에 돌아갈 것을 알았다.' 등에서와 같이 '-은/-ㄴ', '-는', '-을/-ㄴ'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확인되는 의존 명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의존 명사가 아닌 명사 '동안'은 '집에 있는 동안에', '학교에 갈 동안에'처럼 주로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지만,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마음먹은 동안', '집에 가는 동안', '밥을 먹을 동안' 등에서와 같이 '-은/-ㄴ', '-는', '-을/-ㄴ'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확인되는 의존 명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03 파생어의 형성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에서 어근 '날-', '뒹-', '베-', '지우-' 등은 모두 동사이고

파생어 '날개', '뒹개', '베개', '지우개' 등은 명사이므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에서 어근 '끓-', '줄-', '붙-'과 파생어 '끓이다', '줄이다', '붙이다'는 모두 동사이므로 어근과 파생어의 품사가 동일하다. 그러나 '높이다'는 동사이지만, '높-'은 형용사이므로 어근과 파생어의 품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접미사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나타내고, ㉡에서 접두사 '군-'은 '쓸데없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한 설명이다.

③ ㉡은 피동 접미사 '-이-'가 쓰인 피동사이고, ㉠은 사동 접미사 '-이-'가 쓰인 사동사라는 진술은 적절한 설명이다.

④ ㉡에서 접미사 '-이-' 앞에 '꼬-', '떼-'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이고 '놓-', '쌓-'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인 반면, ㉠에서 어근 '신비', '지혜', '풍요', '향기' 등은 모두 모음으로 끝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에서 어근 '끓-', '높-', '줄-', '붙-' 등은 모두 동사의 어간이므로 홀로 쓰일 수 없는 반면, ㉠에서 '신비', '지혜', '풍요', '향기'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04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톱(top)'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을' 등이 오면 '[토비]', '[토블]'로 발음되는 점을 반영하여 '톱'이라고 적은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숍(shop)'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숍]'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② '캣(cat)'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캣]'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③ '킥(kick)'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킥]'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⑤ '로봇(robot)'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로블]'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05 문장 성분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보어는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와 같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으로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 '되고 싶다'가 주어 '나는' 외에 필수적으로 '대학생'을 요구하며, '대학생'이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대학생'은 보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이 문장의 서술어는 ‘있다’이며 이때 주어는 ‘우체국’이다. ‘우체국이 저기에 있다.’로 바꾸어도 의미가 같다.
- ② 이 문장에서 ‘반장이 되었다’의 주어는 ‘지수만’이며, ‘되었다’의 보어는 ‘반장이’로 분석할 수 있다.
- ④ 이 문장의 서술어는 ‘읽는다’로, ‘책을’은 보어가 아닌 목적어이다.
- ⑤ 이 문장에서 ‘께서’는 주어를 높이는 조사이다. ‘부모님께서’가 문장의 주어이다.



**언어 11**

본문 254~259쪽

01 ⑤
02 ③
03 ①
04 ②
05 ①
06 ④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에서는 음운의 축약(‘ㅎ’+‘ㄱ’→‘ㄱ’), ㉡에서는 ‘ㄴ’ 첨가와 교체(‘ㄴ’→‘ㄹ’), ㉢에서는 교체(‘ㄷ’→‘ㄸ’)와 탈락(‘ㅃ’→‘ㅍ’), ㉣에서는 ‘ㄴ’ 첨가와 교체(‘ㄱ’→‘ㅇ’)가 일어난다. ㉡~㉣에서는 교체가 공통적으로 일어나지만 ㉠에서는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에 들어갈 질문은 ‘음운의 교체가 일어나는가?’가 적절하다. 또한 ㉡과 ㉢에서는 ‘ㄴ’ 첨가가 공통적으로 일어나지만 ㉣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나)에 들어갈 질문은 ‘음운의 첨가가 일어나는가?’가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③, ④ 음운의 축약은 ㉠에서만 일어나므로 ‘음운의 축약이 일어나는가?’는 (가)와 (나) 어디에도 적절하지 않다. 음운의 탈락은 ㉢에서만 일어나므로 ‘음운의 탈락이 일어나는가?’는 (가)와 (나) 어디에도 적절하지 않다.

**02 용언**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떠나 버렸다’는 ‘떠나다’와 ‘버리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떠나서 버리다’ 혹은 \*‘떠나 그리고 버리다’가 불가능하므로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없는 보조 용언 구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피했다 가자’는 ‘피하다’와 ‘가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피했다 가 가자’ 혹은 ‘피했다 천천히 가자’가 가능하므로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연속 동사 구문이다.

② ‘자고 일어났다’는 ‘자다’와 ‘일어나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자고서 일어났다’ 혹은 ‘자다 일찍 일어났다’가 가능하므로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연속 동사 구문이다.

④ ‘읽고 보아라’는 ‘읽다’와 ‘보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읽고서 보아라’ 혹은 ‘읽고 나중에 보아라’가 가능하므로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연속 동사 구문이다.

⑤ ‘깎아 먹자’는 ‘깎다’와 ‘먹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깎아서 먹자’ 혹은 ‘깎아 맛있게 먹자’가 가능하므로 두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연속 동사 구문이다.

**03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고향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에서 ‘길’은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의 의미이고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에서 ‘길’은 ‘지향하는 방향이나 목적’의 의미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③, ④, ⑤에서 제시한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의 의미로 쓰인 ‘길’은 ‘스승의 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물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으로서의 ‘길’은 ‘배가 다니는 길’ 혹은 ‘비행기가 길에서 이탈하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국어사전 정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조상들께 제물을 받혀 우리 고장의 안녕을 빌었다.’에서 ‘받혀’ 자리에는 ‘신이나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오는 것이 적절하므로 ㉡은 ‘바쳐’로 고쳐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한 설명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평생을 과학 연구에 몸을 바쳤다.’에서 ‘바쳤다’ 자리에는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오는 것이 적절하므로 ‘바쳤다’는 ‘바쳤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바혔다’로 고쳐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맨바닥에서 잠을 자려니 등이 받쳐서 잠이 오지 않는다.’에서 ‘받쳐서’ 자리에는 ‘단단한 곳에 닿아 몸의 일부분이 아프게 느껴지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오는 것이 적절하므로 현재의 ‘받쳐서’가 맞다. 따라서 ‘받혀서’로 고쳐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아침에 먹은 것이 자꾸 받쳐서 병원에 가야겠다.’에서 ‘받쳐서’ 자리에는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고 위로 치밀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오는 것이 적절하므로 ‘받쳐서’는 ‘받쳐서’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바쳐서’로 고쳐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씻어 놓은 상추를 채반에 받친다.’에서 ‘받친다’ 자리에는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나 야채 따위를 올려 물기를 빼다.’의 의



미를 갖는 단어가 오는 것이 적절하므로 ‘받친다’는 ‘받친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받힌다’로 고쳐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5 품사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동사, 형용사의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 보조 동사의 의미는 문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의미가 사전에서 먼저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② 사전에서의 의미 제시 순서는 사용 빈도와 상관없이 ‘동사-형용사-보조 동사’의 순으로 되어 있다.
- ③ ‘검은색 꽃도 있어.’의 ‘있다’는 형용사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7위 안에 들어간다.
- ④ 형용사 ‘있다’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보조 동사 ‘있다’는 다른 동사 뒤에 붙어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⑤ ‘지금 가고 있어.’의 ‘있다’는 보조 동사이므로 사용 빈도 순위 3에 해당하며, 보조 동사 ‘있다’는 동사 ‘있다’와 형용사 ‘있다’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06 품사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㉔에는 의존 명사의 예가 들어가야 하는데,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의 의미로 사용된 ‘수’는 명사이다. 의존 명사 ‘수’가 사용된 예로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등이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㉑에는 서술격 조사의 예가 들어가야 하는데, ‘오랜만이야’에서 ‘이야’는 ‘이다’의 활용형으로 적절한 예이다.
- ② ㉒에는 의존 명사의 예가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문장의 ‘것’은 명령이나 시킴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는 의존 명사의 예이다.
- ③ ㉓에는 동사로 사용되는 ‘되다’의 예가 들어가야 하는데,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된 ‘대학생이 되면’은 적절한 예이다.
- ⑤ ㉔에는 대명사의 예가 들어가야 하는데, 밑줄 친 ‘나’는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로 사용된 예이다.

언어 12 본문 260~263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②   06 ⑤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값[갑]’은 받침의 자음군 중 ‘ㅅ’이 탈락되는 예이다. ‘жат[잠]’은 받침의 마찰음 ‘ㅅ’이 ‘ㄷ’으로 바뀌는 예이다. ‘숲[습]’은 받침의 파열음의 격음 ‘ㅍ’이 평음 ‘ㅂ’으로 바뀌는 예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밖[박]’은 받침의 파열음의 격음 ‘ㅍ’이 평음 ‘ㄱ’으로 바뀌는 예이다. ‘낮[납]’은 받침의 파찰음 ‘ㅈ’이 ‘ㄷ’으로 바뀌는 예이다. ‘끝[깎]’은 받침의 파열음의 격음 ‘ㅌ’이 평음 ‘ㄷ’으로 바뀌는 예이다. ‘돛[돋]’은 받침의 파찰음 ‘ㅊ’이 ‘ㄷ’으로 바뀌는 예이다. ‘서넛[서넉]’은 마지막 음절 받침의 파열음의 격음 ‘ㅋ’이 ‘ㄱ’으로 바뀌는 예이다.

02 형태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하였다’는 어간 ‘하-’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하였다’는 ‘하-+-었-+-다’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었-’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끓였다’는 ‘끓다’의 사동사 어간 ‘끓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끓였다’는 ‘끓-+-이-+-었-+-다’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었-’을 확인할 수 없다.
- ② ‘호랑이었다’는 ‘호랑이’에 서술격 조사 ‘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호랑이었다’는 ‘호랑이+이-+-었-+-다’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었-’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끄덕였다’는 ‘끄덕’에 접미사 ‘-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끄덕였다’는 ‘끄덕+이-+-었-+-다’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었-’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뺐다’는 ‘퍼-’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뺐다’는 ‘퍼-+-었-+-다’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었-’을 확인할 수 없다.

03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나사를 죄야 한다.’에서 ‘죄야’는 ‘죄-’에 ‘-어야’가 결합된 형태이어야 하므로 ‘죄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죄야’로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햇볕을 쬐었다.’에서 ‘쬐었다’는 ‘쬐-’에 ‘-었-’과 ‘-다’가 결합된 올바른 표기이다. ‘쬐었다’는 ‘쬐다’로 줄여 쓸 수 있다.

㉔ ‘명절 잘 쇠세요.’에서 ‘쇠세요’는 ‘쇠-’에 ‘-세요’가 결합된 형태로 ‘-세요’는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쇠세요’는 올바른 표기이다.

㉕ ‘선생님을 뵈러 갔다.’에서 ‘뵈러’는 ‘뵈-’에 ‘-러’가 결합된 형태로 ‘-러’는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뵈러’는 올바른 표기이다.

㉖ ‘빗물이 웅덩이에 뾰다.’에서 ‘뾰다’는 ‘괴-’에 ‘-었-’과 ‘-다’가 결합된 형태로 올바른 표기이다.

#### 04 피동 표현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㉑ ‘달이 걸렸다.’는 대응되는 능동문 ‘달을 걸었다.’를 아예 설정할 수 없으므로 ㉑의 적절한 예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㉒ 이 문장은 피동문이지만,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남의 힘’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㉓ ‘미끄러지다’는 피동사가 아니며,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남의 힘’도 드러나지 않는다.

㉔ ‘(누군가가) 그를 수상자로 뽑았다.’를 대응하는 능동문으로 설정할 수 있다.

㉕ ‘(누군가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를 대응하는 능동문으로 설정할 수 있다.

#### 05 피동 표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㉑ ㉑의 대응 능동문은 ‘(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이며 목적어인 ‘그 사실’이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났다. \*‘믿기지 않는다.’처럼 주어 ‘그 사실이’가 생략된 문장은 불가능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㉒ ㉒의 대응 능동문은 ‘(누군가가) 동생의 방문을 열었다.’이다. 능동문의 주어 ‘누군가가’는 해당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능동문의 주어 ‘누군가가’를 피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낸다면 ‘누군가에 의해 동생의 방문이 열렸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문장에서 ‘누군가에 의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생략이 가능한 예이다.

㉓ ㉓의 대응 피동문은 ‘내 이름이 연우에 의해 불렸다.’이며 피동문의 주어 ‘내 이름이’가 능동문의 부사어가 아닌 목적으로 나타난다.

㉔ ㉔의 대응 피동문은 ‘모듬별로 일이 나뉘지 않았다.’이며 피동문의 주어 ‘일이’가 능동문의 목적으로 나타나며, 생략이 불가능하다. \*‘모듬별로 나누지 않았다.’는 비문으로, 무엇을 나누지 않

았는지 목적이 필요하다.

㉕ ㉕의 대응 능동문은 ‘누군가가 버스 안에서 지호의 발을 밟았다.’이며 능동문의 목적어인 ‘발을’이 생략될 수 없다.

#### 06 근대 국어 자료 탐구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㉑ ‘도흐니라’는 구개음화의 발생 이전 형태이며, ‘중으니라’는 구개음화의 발생 이후의 형태이다. ‘동-’의 ‘ㄷ’이 반모음 ‘j’ 앞에서 경구개음 ‘z’으로 변화한 후, 단모음화로 인하여 ‘ㄲ’이 ‘ㄱ’로 변화한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㉒ 현대 국어의 ‘꼭지’에서는 어두 위치에 경음이 발견되지만, 근대 국어 자료의 ‘꼭지’에서는 어두 위치에 경음이 쓰이지 않고 있다.

㉓ 현대 국어에서는 ‘ㆍ’가 사라지고 없지만, 근대 국어 자료에서는 ‘ㆍ’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㉔ 현대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음절에서 ‘ㄴ’과 반모음 ‘j’가 나란히 나타나지 않지만, 근대 국어 자료에서는 ‘ㄴ’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㉕ 현대 국어의 ‘그릇이’는 체언과 조사의 경계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를 적용한 것이지만, 근대 국어 자료의 ‘그르시’는 이어 적기를 보이고 있다.

언어 13

본문 264~269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6 ③

#### 01 표기법의 변천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㉑ 2문단의 내용과 같이, ‘-’ 탈락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모두 음운의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표음주의의 ‘둘째’ 예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㉒ 1~2문단의 내용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연음되는 것을 그대로 표기한다. ‘s’의 연음을 그대로 적었으므로 표음주의의 ‘첫째’ 예에 해당한다.

㉓ 2문단의 내용과 같이, ‘ㄹ’ 탈락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모두 음운의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표음주의의 ‘둘째’ 예에 해당한다.



④ 1~2문단과 4문단의 내용과 같이, 이어 적기로 표기한 것은 표음주의의 예에, 원래의 형태 그대로 적은 것은 표의주의의 예에 해당한다.

⑤ 1~2문단과 4문단의 내용과 같이, 종성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여 ‘표’를 ‘ㅃ’으로 적은 것은 표음주의의 예에, 원래의 형태 그대로 적은 것은 표의주의의 예에 해당한다.

### 02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내용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 ㉡ ‘ㄱ’이 ‘ㄷ’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 ㉢ ‘ㅅ’이 ‘ㅆ’으로 바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만,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ㅃ’과 ‘ㅎ’이 ‘ㅍ’으로 축약되는 격음화가 일어나지만, 체언이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ㄴ’이 첨가되고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 03 형태에 관한 조항-제18항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까맣다’는 ‘ㅎ’ 불규칙 용언이므로 ㉠에 속하고 ‘-았-’과 결합하면 ‘까맣다’로 활용한다. 따라서 ‘까맣다’로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담그다’는 ‘ㄹ’ 탈락 용언으로 ㉡에 속하고 ‘-아’와 결합하면 ‘담가’로 활용한다. 따라서 ‘담가’라고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거르다’는 ‘ㄹ’ 불규칙 용언으로 ㉢에 속하고 ‘-어지다’와 결합하면 ‘걸리지다’로 활용한다. 따라서 ‘걸리지다’라고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가깝다’는 ‘ㅃ’ 불규칙 용언으로 ㉣에 속하고 ‘-어’가 결합하면 ‘가까워’로 활용한다. 따라서 ‘가까워’라고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잇다’는 ‘ㅅ’ 불규칙 용언으로 ㉤에 속하고 ‘-으니’와 결합하면 ‘이으니’로 활용한다. 따라서 ‘이으니’라고 적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04 형태에 관한 조항-제30항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허드렛일’은 ‘허드레’와 ‘일’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의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 단어이다. 따라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위층’은 ‘위’와 ‘층’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이 거센소리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하룻길’은 ‘하교’와 ‘길’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제삿날’은 ‘제사’와 ‘날’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의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머리말’은 ‘머리’와 ‘말’이 결합한 합성어로 덧나는 소리가 없애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05 띄어쓰기에 관한 조항-제41항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다른 조사인 ‘부터’에 붙여서 써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조사 ‘밖에’ 앞에 체언 ‘너’가 오는 경우이다.
- ② ‘은커녕’은 합성 조사로 조사 ‘은커녕’ 앞에 체언 ‘핸드폰’이 오는 경우이다.
- ③ 조사 ‘도’ 앞에 다른 조사인 ‘만’이, ‘만’ 앞에 ‘까지’가 오는 경우이다.
- ⑤ 조사 ‘라고’ 앞에 인용절이 오는 경우이다.

### 06 중의문의 유형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③ 첫 번째 문장에서 창수가 우는 사람일 때에는 ‘창수는 울면서 ∨ 떠나는 영이를’로 읽어서 ‘울면서’와 우는 주체인 ‘창수는’을 쉬지 않고 읽으면 된다(㉠에서 쉽.). 영이가 우는 사람일 때에는 ‘창수는 ∨ 울면서 떠나는 영이를’로 읽어서 ‘울면서’와 우는 주체인 ‘영이를’을 쉬지 않고 읽으면 된다(㉡에서 쉽.).
- 두 번째 문장인 ‘의사는 경찰과 환자를 둘러보았다.’라는 문장은 의사가 경찰과 함께 ‘환자’를 둘러본 경우와, 의사가 ‘경찰과 환자’를 둘러본 경우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의사는 경찰과 ∨ 환자를 ∨ 둘러보았다.’라고 ‘의사는’과 ‘경찰과’를 쉬지 않고 읽고, ‘경찰과’와 ‘환자를’ 사이에㉢) 쉬음 두면 ‘환자’만 둘러본 경우를 나타낼 수 있고, ‘의사는 ∨ 경찰과 환자를 ∨ 둘러보았다.’라고 ‘의사는’과 ‘경찰과 환자를’ 사이에㉣) 쉬음 두어 끊어 읽기를 하면 ‘경찰과 환자’를 둘러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⑤ ㉔의 ‘(동네) 어른들’은 ‘뵈었다’의 목적어이므로 객체에 해당하며,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 05 올바른 형태 찾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 뒤에 아무런 조사도 오지 않고 홀로 쓰이면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이어 적기에 의해 조사의 첫음절에 나타나며,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ㅎ’과 ‘ㄱ’이 축약되어 ‘ㅋ’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㉑은 ‘돌’, ㉒은 ‘돌히’, ㉓은 ‘돌과’가 들어가야 올바르다.

### 문법 10

본문 238~240쪽

- 01 ⑤
- 02 ②
- 03 ③
- 04 ④
- 05 ①

### 01 받침의 발음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읽고[일꼬]’는 경음화(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㉑에 속한다. ‘옴대[옴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 규칙이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㉒에 속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흙도[흙또]’는 경음화(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㉑에 속한다. 그러나 ‘읽고[일꼬]’는 ㉒이 아닌 ㉑에 속한다.
- ② ‘닭고[달꼬]’는 격음화(거센소리되기)만 적용되었으므로 ㉑, ㉒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흙도[흙또]’도 ㉒이 아닌 ㉑에 속한다.
- ③ ‘닭고[달꼬]’는 ㉑, ㉒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옴대[옴따]’는 ㉒에 속한다.
- ④ ‘옴대[옴따]’는 ㉑이 아닌 ㉒에 속한다. ‘닭고[달꼬]’는 ㉑, ㉒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 02 파생 동사의 종류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㉒ ‘밀치다’는 ‘밀다’에 접미사 ‘-치-’가 결합된 파생 동사인데 ‘-치-’는 어근의 뜻을 강조하는 의미만을 갖는 접미사로 피동 접

미사가 아니다. 따라서 ‘밀치다’는 피동사의 예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㉑ ‘웃기다’는 ‘웃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파생 동사로 사동사의 예이다.
- ③ ㉓ ‘늦추다’는 형용사 ‘늦다’에 접미사 ‘-추-’가 결합된 파생 동사의 예이다.
- ④ ㉔ ‘반짝이다’는 부사 ‘반짝’에 접미사 ‘-이다’가 결합된 파생 동사의 예이다.
- ⑤ ㉕ ‘약속하다’는 명사 ‘약속’에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파생 동사의 예이다.

### 03 맞춤법 규정의 준말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익숙하지’에서 ‘하’는 안올림소리 ‘ㄱ’ 뒤에 있으므로 ‘하’가 아주 줄어서 ‘익숙지’로 적는다. 따라서 ‘익숙지 않다’가 옳은 표기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간편하게’에서 ‘하’는 올림소리 ‘ㄴ’ 뒤에 있으므로 ‘ㅏ’만 줄고 ‘ㅎ’은 다음 음절 첫소리와 어울려 ‘간편케’로 적는 것이 옳다.
- ② ‘심심하다’에서 ‘하’는 올림소리 ‘ㅁ’ 뒤에 있으므로 ‘ㅏ’만 줄고 ‘ㅎ’은 다음 음절 첫소리와 어울려 ‘심심타’로 적는 것이 옳다.
- ④ ‘깨끗하지’에서 ‘하’는 안올림소리 ‘ㅅ’ 뒤에 있으므로 ‘하’가 아주 준 ‘깨끗지’로 적는 것이 옳다.
- ⑤ ‘다정하지’에서 ‘하’는 올림소리 ‘ㅇ’ 뒤에 있으므로 ‘ㅏ’만 줄고 ‘ㅎ’은 다음 음절 첫소리와 어울려 ‘다정치’로 적는 것이 옳다.

### 04 ‘이다’의 표기에 대한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이다’의 ‘이-’가 쓰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우개이에요’, ‘지우개이었다’처럼 꼭 쓰여야 하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자주 축약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연필이에요’가 적절하지 않은 표기인 것은 ‘연필이었다’가 적절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이-’가 중복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험이다’, ‘생각이다’에도 ‘-예요’가 결합하면 ‘경험이에요’, ‘생각이에요’로 써야 한다.
- ② ‘연필이에요’는 ‘이다’와 ‘이에요’의 ‘이-’가 중복된 형태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며, ‘연필+이-+이-+-예요’로 분석된다.
- ③ 받침이 없는 명사의 경우, 즉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 ‘지우개예요’처럼 ‘명사+이에요’에서 ‘이-’가 줄어든 형태로 쓸 수 있다.



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즉 받침이 있는 명사의 경우는 ‘연필 + 이에요’처럼 ‘명사 + 이에요’로 써야 한다.

## 05 ‘아니다’에 대한 이해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아니다’는 형용사이므로 용언이고, 다른 용언과 마찬가지로 ‘아니다’, ‘아니고’, ‘아니었다’, ‘아니어서’ 등으로 활용을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아니다’는 그 자체로 형용사로, 명사에 ‘이다’가 결합한 형태가 아니다.

③ ‘아니다’는 ‘-에요’와 결합하면 ‘아니에요’로 써야 한다. ‘아니에요’는 ‘아니- + -이- + -에요’의 결합이므로 옳지 않다. 한편, ‘아니에요’는 줄임말 ‘아네요’로 쓸 수 있다.

④ ‘아니다’는 ‘아니’와 ‘이다’로 분석되지 않으므로 ‘이다’의 ‘이’가 탈락한 형태라고 할 수 없다.

⑤ 어미 ‘-다’, ‘-고’, ‘-어서’를 결합시키면 ‘아니다’, ‘아니고’, ‘아니어서’가 된다. ‘아니어서’는 잘못된 형태이다.

## 문법 11

본문 241~246쪽

01 ②   02 ①   03 ②   04 ⑤   05 ③   06 ③

## 01 중세 국어 표기법의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긫’의 ‘ㅈ’은 3문단에서 언급한 중세 국어의 음절 중성 8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긫’의 중성 ‘ㅈ’은 중세 국어에서 발음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표기되었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픈’은 어간 ‘깊-’의 말음 ‘ㅍ’을 이어 적은 경우이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도코’는 ‘동-’의 ‘ㅎ’과 ‘-고’의 ‘ㄱ’이 만나 격음(거센소리) ‘ㅋ’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했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식미’는 명사 ‘십’의 말음 ‘ㅁ’을 이어 적은 경우이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프른’은 명사 ‘물’의 말음 ‘ㄹ’을 이어 적은 경우이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에 해당한다.

## 02 한글 맞춤법 원리의 이해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에 제시된 ‘굽-’의 활용형을 보면 ‘구우니, 구운, 구워’와 같이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으니, -은, -어’와 결합할 때 어간이 바뀐 형태를 소리 나는 그대로 적고 있다. 반면 ‘굽고’와 ‘굽는’의 경우에는 각각 경음화(된소리되기)와 비음화가 적용되어 ‘[굽:꼬]’와 ‘[굽:는]’으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활용형은 ‘구우니, 구운, 구워’이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활용형은 ‘굽고, 굽는’이다.

## 03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의 구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 ‘큰형과’는 뒤에 ‘만’과 같은 보조사가 올 수 있고, ‘큰형과 막내는 다투었다.’와 같이 주어와 자리를 바꿀 수 없으며, 생각할 수 없으므로 ㉠에 쓰인 ‘과’는 부사격 조사이다.

㉡의 ‘사과와’는 뒤에 보조사가 올 수 없고, 주어와 자리를 바꿀 수 없으며, ‘누나는 배를 좋아한다.’와 같이 생략이 가능하므로 ㉡에 쓰인 ‘와’는 접속 조사이다.

㉢의 ‘내 동생과’는 뒤에 ‘도’와 같은 보조사가 올 수 있고, ‘영희는 내 동생과 매우 친하다.’와 같이 주어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없으므로 ㉢에 쓰인 ‘과’는 부사격 조사이다.

㉣의 ‘악당과’는 뒤에 ‘도’와 같은 보조사가 올 수 있고, ‘악당과 영화 속 주인공은 맞서 싸웠다.’와 같이 주어와 자리를 바꿀 수 없으며, 생각할 수 없으므로 ㉣에 쓰인 ‘과’는 부사격 조사이다.

## 04 공손성의 이해와 적용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지금 몇 시야? 몇 시냐고?’라고 묻는 것은 친구가 늦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또한 이는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고서를 지금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공손한 의미 전달을 위해 추측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②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라는 명령을윗사람에게 공손하게 하기 위하여 명령문이 아닌 다른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읽어라.’라는 명령문 대신 의문문을 통해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였고, 해당 대화에서도 명령의 의미가 잘 전달되었다.
- ④ 피동형으로 문장을 표현하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친구를 문장의 주어로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 05 ‘-더-’의 의미 탐구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와 동생이 밥을 먹더라.’ 역시 어색한 문장으로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는 제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인식하게 되었을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수 있다.
- ② ‘내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나지 않은 상황’ 역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수 있다.
- ④ ‘-더니’는 주어가 2인칭, 3인칭인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어가 3인칭인 ㉠의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다.
- ⑤ ‘-았더니/-었더니’는 주어가 1인칭인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시험에 합격했어.’는 올바른 문장이다.

### 06 관형어와 부사어의 이해와 적용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이 문장에서는 ‘바로’가 ‘옆’을 수식한다. ‘바로’는 원래 부사어이지만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바로 옆’은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정말로’는 동사 ‘바라던’을 꾸미므로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가 아닌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이다.
- ② ‘우리’는 명사 ‘선생님’을 꾸미므로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이다.
- ④ ‘나와’는 ‘다르다’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로, 문장의 성립에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이다.
- ⑤ ‘너무’는 ‘고파서’를 꾸미는데,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즉, 문장의 성립에 꼭 필요한 부사어가 아니다.

## 문법 12

본문 247~251쪽

- 01 ②    02 ①    03 ②    04 ④    05 ④    06 ③

### 01 모음의 음운 변동 이해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피어’가 [피여]로 발음되는 것은 어간 ‘피-’와 어미 ‘-어’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된 경우이므로 ㉠에 속한다. ‘사이’가 ‘새[새:]’로 바뀐 것은 단모음 ‘아’와 ‘이’가 ‘애[애:]’로 축약된 경우이므로 ㉡에 속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이기+어’가 [이겨]로 발음되는 것은 어간 ‘이기-’의 단모음 ‘이’가 반모음으로 바뀐 경우이므로 ㉠에 속하지 않는다. ‘쇼’가 ‘소’로 바뀐 것은 이중 모음 ‘쇼’에 포함된 반모음이 탈락한 경우이므로 ㉡에 속하지 않는다.
- ③ ‘이기+어’가 [이겨]로 발음되는 것은 ㉠에 속하지 않는다. ‘겨우루’가 ‘겨울’로 바뀐 것은 마지막 음절의 모음 ‘우’가 탈락한 경우이므로 ㉡에 속하지 않으며, 모음의 충돌을 막는다는 목적과도 무관하다.
- ④ ‘피어’가 [피여]로 발음되는 것은 ㉠에 속하지만, ‘쇼’가 ‘소’로 바뀐 것은 ㉡에 속하지 않는다.
- ⑤ ‘가+아도’가 [가도]로 발음되는 것은 단모음 ‘아’가 탈락한 경우이므로 ㉠에 속하지 않는다. ‘사이’가 ‘새[새:]’로 바뀐 것은 ㉡에 속한다.

### 02 품사와 문장 성분의 이해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저 사람이 네가 말한 그 학생 아니니?’에서 ‘학생’은 서술어 ‘아니니’의 보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② 이 문장에서 ‘학생’은 서술어 ‘봐’의 목적어이다.
- ③ 이 문장에서 ‘학생’은 ‘신분’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 ④ 이 문장에서 ‘학생’은 조사 ‘에게’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 ⑤ 이 문장에서 ‘학생’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 03 한자어와 고유어의 의미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에서 ‘생각’은

문맥에 따라 ‘의식’이나 ‘의견’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 ‘그는 나에게 자신과 같이 같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에서 ‘생각’은 ‘의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 ‘나는 회의 시간에 두발 자율화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에서 ‘생각’은 ‘의견’으로 바꿔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04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구별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람의 다리’에서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 부분.’을 뜻하고 ‘섬을 잇는 다리’에서 ‘다리’는 ‘물을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을 뜻하므로 이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별개의 단어들이다. 따라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보인 경우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연필이 짧다’의 ‘짧다’는 ‘물체의 두 끝의 사이가 가깝다.’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인 반면, ‘시간이 짧다’의 ‘짧다’는 ‘이어지는 시간상의 한 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지 않다.’라는 추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이므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보인 경우이다.

② ‘하늘을 보다’의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구체적인 의미인 반면, ‘기회를 보다’의 ‘보다’는 ‘기회, 때, 시기 따위를 살피다.’라는 추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이므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보인 경우이다.

③ ‘서재에 책이 있다’의 ‘있다’는 ‘실제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인 반면, ‘난처한 지경에 있다’의 ‘있다’는 ‘상황이나 처지에 놓인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이므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보인 경우이다.

⑤ ‘손을 흔들다’의 ‘손’은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인 반면, ‘권력을 손에 넣다’의 ‘손’은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이므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보인 경우이다.

#### 05 맞춤법 규정의 원리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마중’은 ‘맞-’에 접미사 ‘-옹’이 결합된 단어인데 ‘-옹’은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아니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노름’은 ‘놀-’에 접미사 ‘-음’이 결합된 단어로 ‘-음’은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지만, ‘놀-’과 ‘노름’의 뜻이 떨어져 ‘노름’이라고 적는 것이다.

② ‘믿음’은 ‘믿-’에 접미사 ‘-음’이 결합된 단어로 ‘-음’은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 ③ ‘마감’은 ‘막-’에 접미사 ‘-암’이 결합된 단어인데 ‘-암’은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아니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⑤ ‘별이’는 ‘별-’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단어로 ‘-이’는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예에 해당한다.

#### 06 함의의 이해와 적용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A는 B의 부모이다.’는 ‘B는 A의 자식이다.’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이는 상호 함의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가 B를 업었다.’는 동시에 ‘B가 A에게 업혔다.’를 의미하므로 상호 함의이다.

②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므로 두 문장은 상호 함의이다.

④ ‘유리창이 깨졌다.’가 ‘주영이는 유리창을 깨뜨렸다.’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는 일방 함의이다.

⑤ ‘결혼했다.’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는 일방 함의이다.

문법 13

본문 252~257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③
05 ⑤
06 ④

#### 01 현대 국어 모음 체계의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변화가 일어나면 단모음 ‘귀’가 이중 모음으로 바뀌면서, (가)의 단모음 목록에서 단모음이 하나 주는 대신 이중 모음 목록에는 새로운 이중 모음이 하나 늘어난다. ㉡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의 단모음 목록에서 단모음의 수가 하나 준다. 그뿐만 아니라 ㉢으로 인해 ‘내’와 ‘내’, ‘내’와 ‘내’도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 모음 목록에서 이중 모음의 수도 두 개 준다. ㉠은 (가)의 이중 모음 수를 늘리지만 ㉢은 오히려 이중 모음 수를 줄이므로 ④는 잘못된 설명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으로 인해 (가)의 단모음 수는 줄어들지만, ‘내’는 원래 (가)의 이중 모음 목록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일어나더라도 (가)의 이중 모음 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이다.



② ㉠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에 없던 이중 모음 ‘ㄱㅜ’가 새로 생기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③ ㉡이 일어나면 반모음 ‘j’와 ‘ㄱ’로 이루어진 ‘ㄱj’ 및 반모음 ‘j’와 ‘ㄱ’로 이루어진 ‘ㄱj’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ㄱj’와 ‘ㄱj’는 그 안에 포함된 반모음은 ‘j’로 동일하며 단모음이 ‘ㄱ’인지 ‘ㄱj’인지에 따라 구분되므로 ‘ㄱj’와 ‘ㄱj’가 동일하게 발음된다면 ‘ㄱj’와 ‘ㄱj’도 동일하게 발음될 수밖에 없다. ㉢으로 인해 ‘ㄱj’와 ‘ㄱj’가 구분되지 않는 것도 동일한 이유이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이다.

⑤ ㉠으로 인해 (가)의 단모음 ‘ㄱ’이 없어지고, ㉡으로 인해 (가)의 단모음 ‘ㄱj’가 없어진다. 또한 ㉢으로 인해 ‘ㄱj’와 ‘ㄱj’가 하나의 동일한 모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역시 (가)의 단모음 수가 줄어든다. 이처럼 ㉠, ㉡, ㉢은 모두 (가)의 단모음 수를 줄어뜨게 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02 종결 어미의 의미와 구분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에는 자신이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하고 있으므로 ‘-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에는 ‘숙제가 많은 것’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못마땅한 뜻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에는 남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대[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3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이해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따르다’는 ‘따르- + -아 → 따라’로 활용하여 어간의 ‘으’가 탈락되므로 ㉠ ‘치르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 ‘푸르다’는 ‘푸르- + -어 → 푸르러’로 활용하여 어미가 ‘-러’로 바뀌므로 ㉡ ‘이르러’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 ‘오르다’는 ‘오르- + -아 → 올라’로 활용하여 어간의 ‘으’가 탈락되고 어미도 ‘-라’로 바뀌므로 ㉢ ‘부르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

### 04 로마자 표기의 이해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셋별[셋:뻬]’을 ‘saetppyeol’로 표기하지 않고 ‘saetbyeol’로 표기한 것에서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같이[가치]’를 ‘gati’가 아닌 ‘gachi’로 표기한 것에서 구개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함을 알 수 있다.

② ‘신라[실라]’를 ‘Sinla’가 아닌 ‘Silla’로 표기한 것에서 자음 동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함을 알 수 있다.

④ ‘농다[노타]’를 ‘nohda’가 아닌 ‘nota’로 표기한 것에서 동사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함을 알 수 있다.

⑤ ‘담요[담뇨]’를 ‘damyo’가 아닌 ‘damnyo’로 표기한 것에서 ‘ㄴ’ 첨가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함을 알 수 있다.

### 05 과거 시제의 활용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에 해당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잘생기다’는 과거형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이다.

② ‘났다’는 과거형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이다.

③ ‘늡다’는 과거형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이다.

④ 해당 문장은 ‘넌 이제 혼날 것이다.’라는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여 표현한 문장으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형으로 표현하였다.

### 06 중세 국어 격 조사의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수저’는 음성 모음에 해당하는 ‘ㅍ’로 끝나며 무정물에 속한다. 여기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면 선행 체언이 ‘이’와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제’와 같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면 선행 체언이 무정물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젓’과 같이 실현되어야 한다.



⑤ ‘마주’는 ‘서로 똑바로 향하여’를 뜻하는 말로 ‘맞-+-오’에서 왔으므로 또 다른 예로 볼 수 있다.

### 문법 10

본문 269~274쪽

- 01 ①
- 02 ②
- 03 ④
- 04 ④
- 05 ⑤
- 06 ①

#### 01 음운 변동의 유형 구분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말는[만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었으며, 이 둘은 모두 교체에 속하므로 ①에 속한다. ‘흙과[흑과]’에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으며, 된소리되기는 교체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어서 ①의 예에 속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닭고[담:꼬]’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으며, 된소리되기는 교체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어서 ①에 속하지 않는다. ‘옳다[읍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는 교체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어서 ①의 예에 속한다.

③ ‘웃하고[오타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적용되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이고 자음 축약은 축약이어서 ①에 속하지 않는다. ‘흙자[흑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는 교체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므로 ①의 예에 속한다.

④ ‘빛고[빈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었으며, 이 둘은 모두 교체에 속하므로 ①에 속한다. ‘할이대[할치다]’는 교체에 속하는 구개음화만 적용되었을 뿐이므로 ①에 속하지 않는다.

⑤ ‘밑이[미치]’는 교체에 속하는 구개음화만 적용되었을 뿐이므로 ①에 속하지 않는다. ‘꽃잎[핀닙]’은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적용되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교체이고 ‘ㄴ’ 첨가는 첨가이므로 ①의 예에 속한다.

#### 02 자음 체계를 통한 음운 변동의 성격 파악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는 비음화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며, 자음의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음 방식만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고 있다. ㉡는 유음화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며, 역시 자음의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음 방법만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고 있다. 즉

㉠와 ㉡는 모두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 03 의존 명사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어쩔 줄 몰랐다’에서 ‘어쩔 줄(을)’은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데’ 앞에는 ‘의지할’처럼 관형어가 수식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의존 명사 중에는 ‘데’처럼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이 없는 것이 있는 반면, ‘바람’처럼 제약이 심한 것이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참고로, 국어사전에서는 의존 명사 ‘바람’에 대해서 “(‘-는 바람에’ 구성으로 쓰여)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③ 의존 명사 ‘나위’ 뒤에는 주로 조사 ‘가’가 쓰이며 뒤에 서술어로 ‘없다’가 오는 구성으로 쓰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고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인데, 둘의 형태가 동일하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 04 ‘있다’의 품사 구별하기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조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라’처럼 활용되므로 동사이다. ㉡은 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라’처럼 활용되지 않으므로 형용사이다. ㉢은 교실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라’처럼 활용되므로 동사이다. ㉣은 동전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라’처럼 활용되지 않으므로 형용사이다.

#### 05 명령문에서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의 차이 이해하기

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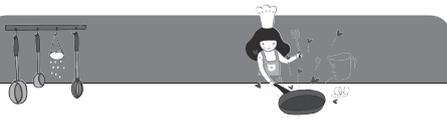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고향을 떠나 고생하는 아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하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직접 명령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돌아오다’의 어간 ‘돌아오-’에 ‘-아라’를 결합한 ‘돌아와라’가 적절한 표현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인쇄 매체를 통해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간접 명령형을 사용해야 하므로 ‘살다’의 어간 ‘살-’에 ‘-라’를 결합한 ‘살라’가 적절한 표현이다.

② 옆에 있는 친구에게 시계를 고치는 행동을 하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직접 명령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고치다’의 어간 ‘고치-’에 ‘-어라’가 결합한 ‘고쳐라’가 적절한 표현이다.



③ 인세 매체를 통해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간접 명령형을 사용해야 하므로 ‘고르다’의 어간 ‘고르-’에 ‘-라’가 결합한 ‘고르라’가 적절한 표현이다.

④ 불특정 청자에게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간접 명령형을 사용해야 하므로 ‘말다’의 어간 ‘말-’에 ‘-라’가 결합한 ‘말라’가 적절한 표현이다. (※ 참고로, ‘말다’는 직접 명령형을 만들기 위해 ‘-아라’가 결합할 때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한 활용형인 ‘마라’와 탈락하지 않은 활용형인 ‘말아라’를 모두 표준형으로 인정하고 있음.)

**06 문장 성분, 자릿수 이해하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서 수의 성분은 ‘잘’ 하나만 들어 있다. 주어 ‘동호가’, 서술어 ‘어울린다’는 필수 성분이고, ‘잘’은 부사어로서 수의 성분인데 ‘수희와’는 부사어이지만 ‘어울리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요소이므로 필수 성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에는 부속 성분이 ‘무척’ 하나만 들어 있다. 주어 ‘진희가’, 목적어 ‘가을을’, 서술어 ‘좋아하다’는 모두 주성분이다.

③ ㉢에는 필수 성분이 세 개 들어 있다. 주어 ‘수진이는’, 부사어 ‘부산 지리에’, 서술어 ‘익숙하다’가 모두 필수 성분이다. 참고로 부사어 ‘부산 지리에’ 속에는 ‘지리’를 꾸며 주는 관형어 ‘부산’이 들어 있다.

④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이루어진 ‘광장에서’는 ‘보다’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의 성분이고, 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이다.

⑤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이루어진 부사어 ‘민수에게는’ ‘주다’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이다.

**문법 11**

본문 275~279쪽

- 01 ②
- 02 ④
- 03 ③
- 04 ⑤
- 05 ③
- 06 ⑤

**01 음운의 정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자음에 속하는 ‘ㄹ’과 ‘ㅂ’의 차이에 의해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는 내용이다. ㉡은 모음에 속하는 ‘ㅐ’와 ‘ㅑ’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단어의 뜻이 혼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은 비분절 음운에 해당하는 장단의 차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음, 모음, 장단은 모두 음운에 속하며, 이러한 음운의 차이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데 관여한다는 내용이다.

로 ②가 가장 타당한 결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만 있는 것은 아니며, ㉠~㉢도 이러한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음운은 자음, 모음, 반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과 장단과 같은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이러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은 음운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은 음운 변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02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품사 분류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품사는 형용사이고 ㉡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은 앞말에 대한 서술성이 없고 체언 ‘무릎’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 ㉣는 ‘인사성이’에 대한 서술성을 지니므로 형용사, ㉤는 앞말에 대한 서술성이 없고 체언 ‘친구’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 ㉥는 ‘사정이’에 대한 서술성을 지니므로 형용사이다. 따라서 ㉠과 동일한 품사의 단어는 ㉣와 ㉥이고, ㉡과 동일한 품사의 단어는 ㉢와 ㉤이다.

**03 조사와 어미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밖을뵈더러’의 ‘-을뵈더러’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가든지’의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실력뿐이다’의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배든지’의 ‘든지’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집에서뿐만’의 ‘뿐’은 보조사이고, ‘걸어서든지’의 ‘든지’도 보조사이다.

④ ‘좋을뵈더러’의 ‘-을뵈더러’는 연결 어미이고, ‘혼자서든지’의 ‘든지’는 보조사이다.

⑤ ‘친구들에게뿐만’의 ‘뿐’은 보조사이고, ‘잘한다든지’의 ‘든지’도 보조사이다.

**04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시간 표현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문장에서 ‘가는’의 행위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행위로 해석되고 과거로 해석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문장에서 ‘읽을’의 행위는 책을 구입한 후 아직 읽지 않았다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미래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책을 구입한 후 발화시, 즉 말하고 있는 현재 이전에 읽었다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이 문장에서 ‘하는’의 행위는 우리가 본 시점인 과거와 동일한 때이므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보기>의 첫 번째 예와 시간 표현에 대한 해석이 같다.

③ 이 문장에서 ‘먹을’의 행위는 아직 소풍을 가지 않은 상태라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미래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미 소풍을 갔다 왔다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이 문장에서 ‘본’의 행위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미래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 문장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이미 본 영화를 또 볼 것이라는 언급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본’의 행위는 과거의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

**05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위한 지시 표현, 대응 표현, 접속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화자나 청자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말을 꺼낼 때 쓰는 감탄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손님’이 앞서 언급한 ‘빨간 원피스’를 가리키는 말로, ‘손님’의 발화와 그에 대응하는 ‘점원’의 발화를 연결하여 응집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화자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화자(점원)가 ‘빨간 원피스’를 꺼내 주는 상황을 표현한다.

④ ㉣은 ‘손님’이 자신이 입고 있는 ‘빨간 원피스’의 색을 가리키는 말이고, ㉤은 ‘점원’이 ‘손님’이 입고 있는 ‘빨간 원피스’의 색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과 ㉤이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다.

⑤ ㉥은 ‘점원’이 화제를 앞의 내용(‘우리 상점에는 파란 원피스도 있다.’)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손님에게는 빨간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이고 있다.

**06 의미 변화의 양상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를 보면 옛말 ‘겨집’의 경우, 현대 국어 ‘계집’의 의미를 갖고 있고 추가로 ‘여자<sup>02</sup>’, ‘아내<sup>01</sup>’의 의미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 현대 국어의 ‘계집’이 된 것이므로 현

대 국어에서는 ‘여자<sup>02</sup>’, ‘아내<sup>01</sup>’의 일반적 의미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미의 축소’로 볼 수 있다. 옛말인 ‘어엿브다’는 ‘불쌍하다’는 의미를 지녔다가 현대 국어에서 ‘예쁘다’라는 별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므로 ‘의미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문법 12**

본문 280~285쪽

- 01 ②
- 02 ⑤
- 03 ④
- 04 ③
- 05 ②
- 06 ④

**01 음운 첨가에 대한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놓은[노은]’에서는 용언 어간의 마지막 자음인 ‘ㅎ’이 탈락했을 뿐 음운 첨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솔잎[솔립]’은 ‘ㄴ’이 첨가된 후 선행하는 ‘ㄹ’에 의해 유음화가 일어났다. 또한 어말에 있는 ‘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ㅂ’으로 바뀌었다.

③ ‘되여[되여]’는 용언 어간의 모음 ‘ㅛ’ 뒤에 반모음 ‘j’가 첨가되어 어미의 모음 ‘ㅣ’와 결합한 결과 ‘ㅟ’로 실현되었다.

④ ‘색연필[생년필]’은 ‘ㄴ’이 첨가된 후 ‘ㄴ’에 의해 비음화가 일어났다.

⑤ ‘기어서[기여서]’는 용언 어간의 모음 ‘ㅣ’ 뒤에 반모음 ‘j’가 첨가되어 어미의 모음 ‘ㅣ’와 결합한 결과 ‘ㅟ’로 실현되었다.

**02 ‘들’이 의존 명사, 접사, 보조사로 쓰이는 것 이해하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어서들’에 쓰인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예이다. ‘-들’이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인 예문으로는 “그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를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공책, 신문, 지갑 들을’의 ‘들’은 열거한 둘 이상의 사물 모두를 가리키므로 의존 명사로 쓰인 적절한 예이다.

② ‘보고들’의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적절한 예이다.

③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를 뜻하는 ‘들개’의 ‘들’은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인 적절한 예이다.

④ ‘까다롭게 굴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하여 남을 못살게 굴다’를 뜻하는 ‘들볶다’의 ‘들’은 ‘마구’, ‘몹시’ 등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인 적절한 예이다.



**03 부정문에 쓰이는 '못하다'의 다양한 쓰임 이해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못해도 스무 명은'에 쓰인 '못하다'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㉔의 적절한 예가 아니다. ㉔의 적절한 예로는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에 쓰인 '못하다'를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잊지 못했다'에 쓰인 '못하다'는 말을 잊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한 행동을 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므로 ㉑의 적절한 예이다.
- ② '들어가지 못한다'에 쓰인 '못하다'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㉒의 적절한 예이다.
- ③ '동의하지 못하겠어'에 쓰인 '못하다'는 '거부'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㉓의 적절한 예이다.
- ⑤ '고프다 못하여'에 쓰인 '못하다'는 배가 고프는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므로 ㉕의 적절한 예이다.

**04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이해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대답으로 보아 ㉔의 발화 의도는 청유가 아니라 (약한) 명령이다. 명령이 직접 발화로 나타나면 명령문이 될 것이지만, ㉔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쓰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대답으로 보아 ㉑의 발화 의도는 제안 혹은 (약한) 명령이다. 제안 혹은 명령이 직접 발화로 나타나면 명령문이 될 것이지만, ㉑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쓰였다.
- ② '나'의 대답으로 보아 ㉒의 발화 의도는 감탄이다. 감탄이 직접 발화로 나타나면 감탄문이 될 것이지만, ㉒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쓰였다.
- ④ '나'의 대답으로 보아 ㉕의 발화 의도는 강한 서술이다. 서술이 직접 발화로 나타나면 평서문이 될 것이지만, ㉕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쓰였다.
- ⑤ '나'의 대답으로 보아 ㉓의 발화 의도는 질문이다. 질문이 직접 발화로 나타나면 의문문이 되는데, ㉓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쓰였다.

**05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위한 대응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㉒은 뒤에서 '특별한 시간'으로 다시 언급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에 해당한다. 또한 ㉒이 '어느'의 수식을 받고 있는 데에서도 ㉒이 피수용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앞에 나온 '남자'를 재수용하는 말이므로 수용어에 해당한다. 또한 ㉑이 대명사라는 점에서도 ㉑이 수용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③ ㉓은 뒤에서 '모두'로 다시 언급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에 해당한다. 뒤 문장의 '모두'는 앞에 나온 ㉓을 재수용하는 말이고, 또한 '이'의 수식을 받고 있는 데에서도 수용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④ ㉔은 뒤에서 '그'로 다시 언급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에 해당한다. 뒤 문장의 '그'는 앞에 나온 ㉔을 재수용하는 말이고, 또한 대명사라는 점에서도 수용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⑤ ㉕은 뒤에서 '그렇게'로 다시 언급되는 말이므로 피수용어에 해당한다. 뒤 문장의 '그렇게'는 앞에 나온 ㉕을 재수용하는 말이고, 또한 지시어라는 점에서도 수용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06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단어 합성법 이해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현대 국어의 '빌어먹-'은 '어간(빌-) + 어미(-어) + 어간(먹-)'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㉑의 예로 적절하고, 중세 국어의 '빌먹-'은 '어간(빌-) + 어간(먹-)'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㉒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대 국어의 '나아가-'는 '어간(나-) + 어미(-아) + 어간(가-)'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㉑의 예로 적절하지만, 중세 국어의 '나사가-'는 '어간(낚-) + 어미(-아) + 어간(가-)'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㉒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현대 국어의 '돌아오-'는 '어간(돌-) + 어미(-아) + 어간(오-)'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㉑의 예로 적절하지만, 중세 국어의 '도라오-'는 '어간(돌-) + 어미(-아) + 어간(오-)'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㉒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현대 국어의 '듣보-'는 '어간(듣-) + 어간(보-)'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㉑의 예로 적절하지 않지만, 중세 국어의 '듣보-'는 '어간(듣-) + 어간(보-)'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㉒의 예로 적절하다.
- ⑤ 현대 국어의 '오르내리-'는 '어간(오르-) + 어간(내리-)'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㉑의 예로 적절하지 않지만, 중세 국어의 '오르내리-'는 '어간(오르-) + 어간(내리-)'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㉒의 예로 적절하다.



# 문법 13

본문 286~289쪽

- 01 ④
- 02 ②
- 03 ③
- 04 ①
- 05 ⑤
- 06 ②

## 01 동화 현상에 대한 이해

답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피동화음인 ‘ㄴ’이 동화음인 ‘ㄹ’과 같아졌지만, ㉡은 피동화음인 ‘ㄷ, ㅌ’이 동화음인 ‘ㄴ’과 같아지지는 않았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동화음이 ‘ㄹ’이고 피동화음이 ‘ㄴ’으로서 동일하다. ㉠과 ㉡의 차이는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놓인 순서에 있다.
- ② ㉠은 동화음인 ‘ㄹ’이 피동화음인 ‘ㄴ’보다 앞서지만 ㉡은 그 반대이다.
- ③ ㉡은 동화음인 ‘ㄹ’이 피동화음인 ‘ㄴ’보다 뒤에 오고 ㉢ 역시 동화음인 ‘ㄴ’이 피동화음인 ‘ㄷ, ㅌ’보다 뒤에 온다.
- ⑤ ㉠, ㉡, ㉢은 모두 동화음과 피동화음 사이에 다른 음이 오지 않는다.

## 02 단어 간의 상하 관계 이해하기

답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무’를 상의어, ‘뿌리’를 하의어로 볼 수 없다. 즉 두 단어 간에 상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무’와 ‘뿌리’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새’는 상의어, ‘비둘기’는 하의어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하 관계의 예로 적절하다.
- ③ ‘꽃’은 상의어, ‘장미’는 하의어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하 관계의 예로 적절하다.
- ④ ‘물고기’는 상의어, ‘갈치’는 하의어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하 관계의 예로 적절하다.
- ⑤ ‘구기’는 상의어, ‘축구’는 하의어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하 관계의 예로 적절하다.

## 03 시간 표현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의 다양한 쓰임 이해하기

답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비타민을 먹는다’에 쓰인 ‘-는-’은 어떤 행위가 일상적인 습관으로 이뤄지는 것을 뜻하므로 적절한 의미로 볼 수 없다. 특정한 시간에 사건이 일어날 예정임을 뜻하는 ‘-는-’이 쓰인 예는 “이 은행은 4시간 후에 문을 닫는다.”를 들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예쁘게 피었습니다’에 쓰인 ‘-었-’은 꽃이 핀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② ‘다 갔구나’에 쓰인 ‘-았-’은 미래에 나들이를 못 가게 될 것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낸다.
- ④ ‘내일 온다’에 쓰인 ‘-ㄴ-’은 가까운 미래인 내일 그가 올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 ⑤ ‘반드시 죽는다’에 쓰인 ‘-는-’은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 04 상대 높임 종결 어미의 특성 이해하기

답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문장이 예컨대 장인이 사위에게 하는 말이라면 ‘-네’를 하체체의 어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예컨대 친구끼리 하는 말이라면 ‘-네’를 해체의 어미로 이해할 수 있다. 뒤의 경우,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면 ‘-네’에 ‘요’를 더 붙여 ‘-네요’라고 말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으)르게’는 해체 평서형 어미로서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요’를 더 붙여 ‘-(으)르게요’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높인다면 이 문장에서는 ‘내가’를 ‘제가’로 바꾸어 높임과 겸양의 짝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 ③ ‘-구나’는 해라체 감탄형 어미로서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쓰지 않고 ‘요’를 붙일 수도 없다.
- ④ ‘-어’는 해체 어미로서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요’를 더 붙여 ‘-어요’라고 할 수 있다.
- ⑤ ‘-니’는 해라체 의문형 어미로서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쓰지 않고 ‘요’를 붙일 수도 없다.

## 05 담화의 응집성과 통일성을 위한 지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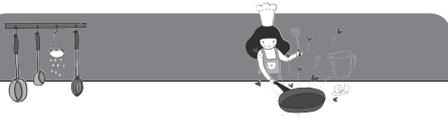
답 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인 ‘검은벌무닛병’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인 ‘사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과’를 수식하는 관형사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의 예로 적절하다.
- ② ‘이’는 복수 접미사 ‘-들’ 앞에 쓰여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의 예로 적절하다.
- ③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점’을 수식하는 관형사에 해당하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㉕의 예로 적절하다.

④ ‘이’는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인 ‘지금 기분’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조사 ‘보다’와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명사에 해당하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㉕의 예로 적절하다.

**06 중세 국어의 목적어 실현 방식 이해하기**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현대어 풀이 ‘꽃 좋고’로 미루어 보아 ‘꽃’은 격 조사가 없이 주어 가 실현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목적어가 실현되었다.
- ③ 체언 ‘꽃’에 보조사 ‘으랴’이 붙어 목적어가 실현되었다.
- ④ 명사구 ‘부텃 像(부처의 형상)’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가 실현되었다.
- ⑤ 명사절 ‘뵈 툃기(배 타기)’에 목적격 조사 ‘르’이 붙어 목적어가 실현되었다.

**실전 학습**

**실전 학습 1 회** 본문 292~305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⑤	05 ④
06 ③	07 ②	08 ②	09 ②	10 ⑤
11 ④	12 ④	13 ③	14 ③	15 ⑤

**01 강연 계획의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2문단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험을 환기하고 있지, 인터넷 동물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연설의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 동물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연설이므로 도입 부분에서 연설의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은 연설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2문단에서 연설자는 어떤 점이 좋아서 인터넷을 활용해 물건을 구매하는지 물었고, 3문단에서 인터넷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거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한다는 계획은 연설에 반영되었다.

② 연설자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판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역시, 거의 다 들었네요. 그럼 어떤 물건을 사고팔았나요?’라는 말을 통해 인터넷 상거래와 관련한 청중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청중의 경험을 상기시켜 연설 내용에 공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는 계획은 연설에 반영되었다.

③ 연설자는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동물을 어떻게 기르게 되셨나요?’ 등과 같은 질문을 하고, 청중의 반응을 보거나 대답을 들은 후 연설을 이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연설 내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반려동물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반응을 살핀다는 계획은 연설에 반영되었다.

⑤ 「동물 개인 거래 및 사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된 동물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만 무려 1만 7,573마리에 이른다는 연설 내용에서 자료의 출처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힘으로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와 구체적 수치를 분명하게 밝혀 제시한다는 계획은 연설에 반영되었다.

**02 말하기 전략 평가**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연설자는 반려동물의 사진, 박스 안에 든 동물 사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다른 대상과 대조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없다.
- ③ 질문을 통해 청중의 경험을 상기시키거나 반응을 살피는 내용은 나타나 있으나, 질문을 통해 청중이 잘못 예측한 부분을 바로 잡는 내용은 없다.
- ④ 인터넷 동물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 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거나 실천 방안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은 없다.
- ⑤ 우리나라의 경우를 토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여러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여 청중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

**03 듣기 전략의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연설은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여 인터넷으로 동물을 거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자는 내용이다. <보기>에도 반려동물을 단순한 취미나 소유물로 인식해 소중히 생각하